




정부독재에 대한 불만과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참정성은 6월 하늘에 울려 퍼졌다.
 6월민주항쟁은 근사적 독재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개정판]

6월 민주항쟁

유시춘 지음 / 정호기 해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개정판]

6월민주항쟁

펴낸일 | 2015년 3월 30일

지은이 | 유시춘

해설 | 정호기

펴낸이 | 박상증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소 | (110-150)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20

www.kdemo.or.kr

제작·유통 | 오름(www.oruem.co.kr)

사진자료제공 | 인터넷으로 만나는 6월항쟁기념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 전자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출판권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허락없이 이 책의 일부나 전체를 어떠한 형태로도 가공할 수 없습니다.

본 전자책은 콘텐츠 생산자인 해당 출판사가 2차 저작권을 소유하고 편집방침과 검수를 통해 최상의 품질로 제작하여 한국출판콘텐츠(www.e-kpc.co.kr)가 공급하는 양질의 전자책입니다.(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6월민주항쟁

유시훈 지음 / 정호기 해설

개정판을 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쓰고 찍어 나누어왔던『역사다시읽기』를 군데군데 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1.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과 설명글을 추가하고 편집을 컬러로 바꾸었습니다.
2.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과 사건, 인물을 새롭게 써서 보태고 상자글로 처리하여 본문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3. 내용의 흐름을 살리면서도 소주제별로 읽힐 수 있도록 소제목을 새로 달았습니다.
4. 기존 판형(신국판 148×225mm)을 좀 더 넓고 시원한 판형(172×218mm)으로 바꾸어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5.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맞닿도록 관련 현장에 조성된 기념물 형상을 해당 지면에 수록했습니다.

개정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오랜 기간 축적한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고, 정호기? 이종률? 양금식 등이 참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판이 널리 읽혀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자긍심을 갖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사는 과거를 빌미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퇴행의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생생한 현실인식입니다. 오늘의 삶과 사회를 직시하고 내일의 변화와 대안을 찾기 위한 향해의 나침반이자 지도입니다. 역사는 기억을 뛰어넘는 성찰이며, 지난날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동시에 오늘을 재인식하는 진리 탐구의 망원경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족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지금 이곳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 같은 과정이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역사다시읽기’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짚어지고 나갈 뚜렷 뚜렷한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글머리에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문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노래는 그 시대를 사는 이들의 삶을 반영한다. 특히 대중들이 애창하는 노래일수록 당대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좌절, 집단적 꿈을 절실하게 담고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엠프쓰리(mp3) 음악 파일로 친구끼리 유행가를 공유하듯이, 1970년대와 80년대의 청년들은 김지하 시인의 저항 시에 곡을 붙인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노래를 공유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원하게 푹 터진 공간에서, 때로는 휘황찬란한 광장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아무 때나 마음 놓고 큰소리로 흥얼거릴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그 시절에는 자기가 부르고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밀실로 모여 들어야만 했다는 점

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노래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다.

* 김지하

김지하는 1941년 2월 4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김영일(金英一)이다.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재학하던 1964년에 참여한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으로 4개월간 수감되었다. 1966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69년『시인』지에 ‘황톳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가의 길을 걸었다.『황토』,『타는 목마름으로』,『애린』,『별밭을 우러르며』 등의 시집과『밥』,『남녘 땅 노래』,『살림』 등의 산문집을 저술했다. 김지하는 1970년『사상계』에 ‘오적’을 발표한 이래 ‘비어 필화사건’, ‘민청학련사건’, ‘고행—1974 필화사건’ 등에 연루되어 8여 년 동안 수감되었고, 1980년 1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김지하는 1980년대에는 각 종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수용하여 생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990년에는 ‘한살림모임’을 만들어 생명사상의 확대와 민중적 실천을 모색했다. 1998년에는 ‘울려학회’를 발족하여 울려사상과 신인간운동을 주장했다.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고, 그의 작품들은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지적 자산이었다. 그는 1975년 ‘로터스 특별상’을 수상했고,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으며,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위대한 시인상, 이산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오늘의 청소년은 누구나 2002년 6월 월드컵 당시 태극전사를 응원하던 ‘붉은 악마들’의 합성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자신들이 주인공이었으며 모두가 하나 되어 민족적 일체감을 확인했던 그 뜨거운 축제의 광장에서 목청껏 불렀던 노래를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자율, 패기와 희망이 서로 융합하여 용솨음치고 세대와 계층을 뛰어 넘어 모든 이들이 붉은 악마로 한 몸이 되었던 그 순간, 이 행복한 결합에 세계만방이 놀랐고 그리고 부러워했다.

세계가 주목한 바로 그 자리, 서울시청 앞 광장의 거대한 붉은 합성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날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 1987년 6월 내내 한국의 청년들과 일반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새날을 열기 위해 새벽의 붉은 구름처럼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절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간 친구 이한열의 장례행렬을 떠나보냈다. 그때 그들은 2002년의 ‘오 필승, 코리아!’처럼 ‘민주주의여 만세!’를 목메어 불렀다. 그들 또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일백만 추도인파가 운집한 서울시청

* 이한열

이한열은 1966년 8월 29일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출생했다. 1985년 2월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3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리 '만화사랑'에서 활동했다.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경,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폐 규탄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여했던 이한열은 교문 앞 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았다. 그는 연세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7월 5일 새벽 2시 5분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한열의 유해는 7월 9일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을 지내고, 광주시 운정동 소재 민족민주열사묘지 55번에 안장되었다. 2001년 3월 20일「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한열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했다. 1988년 9월 연세대학교 교정에 이한열 동산과 추모비가 조성되었고, 2005년 6월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4-38번지에 이한열 기념관이 재건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5일에는 광주진흥고등학교 교정에 '민주열사 이한열 상'이 세워졌다. 이한열 피격사건은 박종철의 죽음과 더불어 6월민주항쟁을 이끌었던 중요한 동력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그 작용에 관한 근본법으로서 그 밑의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으로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앞의 운구행렬 가치와 이념을 천명한 최고 법규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대별하여 조문별로 명확히 명기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을 설립 하면서 우리는 세계 여러 문명 국가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자랑스러운 헌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민주적 헌법을 둔 국민들이, 모든 권력의 창출자인 국민들이 어째서 타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남몰래 숨어서 위의 노래를 절규해야 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왜 자유는 '추억'으로만 존재했으며 헌법 1조인 '민주공화국'을 자랑스럽게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남몰래 그리워해야만 했을까?



●●● 민주주의 시민축제 '6월난장'—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서울시청 앞

*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조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2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

그 까닭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정통성과 효율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모독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찬탈한 육군 소장 박정희는 헌법을 고쳐 온갖 부정선거로 삼선 집권을 하고도 모자라 1972년 마침내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한 이른바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쓰러지기까지 18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금지하고 억압했다. 유신체제는 유신헌법에 대해 가타부타 말만 하여도 영장 없이 체포되어 기약 없는 징역을 살아야만 했을 정도로 일체의 다른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히틀러의 파시즘체제와 동일한 체제였다. 유신체제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질서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 서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밤새워 열심히 일해도 세 끼 밥을 해결하기 어려운 극도의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반면 권력의 특혜와 정경유착의 부패를 고리로 기업주와 특권층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고 있었다. 노동자의 지옥 같은 삶을 알릴 방법이

없었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스로 불길에 휩싸여 생명을 던진 일은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가 빈사상태에 놓였던 현실을 응변해 주었다.

*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4개 비상조치를 포함한「10·17대통령 특별선언」을 육성으로 방송했다. 특별선언의 내용은 ① 국회 해산, 정당과 정치활동 중지,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 ②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 ③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 확정, ④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1972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헌법 개정에 열을 올렸고,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9% 투표율에 91.5% 찬성률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었다. 이 기구는 12월 23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박정희를 선출했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유신을 단행했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전태일거리와 동상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했다.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서울시 중구청은 전태일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5년 9월 30일 평화시장 입구 버들다리에 동상을 설치하고, 11월 12일 전태일 거리를 준공했다. 이 사업에는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시민 15,000여 명이 참여했다.

* 전태일

1948년 8월 26일 경상북도 대구시 남산동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1954년에 상경했다. 그의 부모는 연고가 없던 서울에서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 온갖 일을 전전했다. 학업은 남대문초등공민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에 편입했으나, 가세가 기울어 중퇴해야 했다. 가족은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다가 다시 대구시로 내려갔고, 이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봉 일을 배웠다. 식모살이를 위해 홀로 상경한 어머니를 찾아 1964년 서울로 온 전태일은 1965년 가을 평화시장 내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업했다. 이후 ‘한미사’ 보조 재단사로 일했으며, 1966년 ‘통일사’ 재봉공을 걸쳐 1967년에 재단사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태일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나이 어린 여공들을 돕다가 ‘근로기준법’을 접하게 되었다.

전태일은 1969년 6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바보회’를 조직했으나, 위험분자로 몰려 해고되었고, 바보회도 와해되었다. 전태일은 1970년 9월 16일 ‘삼동친목회’를 조직했으나, 다시 해고되었다. 그는 10월 6일 설문조사에 근거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개선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10월 8일 평화시장 사무실에 찾아가 8개항의 요구 조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10월 17일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고 거짓으로 발표했다. 이에 삼동친목회는 10월 24일 시위를 모의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1월 13일 시위는 성사되었다. 이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전태일

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등을 외치며 분신 항거했다.

그의 죽음은 노동환경의 열악성을 사회 각계에 알리는 등 큰 관심을 유도했고, 학생들과 종교계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행사를 벌였다. 어머니 이소선은 장례투쟁을 전개하여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있게 했다. 이후 그의 죽음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노동운동의 표상이 되었다. 2001년 1월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전태일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관계 일반에 적용하는 노동보호법이다.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공포되었던 근로기준법은 1953년 1월 27일 제정된 노동조합법, 1월 30일 제정된 노동쟁의법과 더불어 노동 관련 3대 법률로 분류된다. 한국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들을 제정해야 했을 정도로 노동자의 처우와 삶은 열악한 상태였으며,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근로기준법은 제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노동자를 통제하는 데 활용되거나 유명무실했다.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분신으로 항거하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친 것은 이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삶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노동관계 기관의 행위를 세상에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학생회가 아니라 군대처럼 ‘학도호국단’이라는 병영체제 아래에서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생각해보라.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여름 한낮 피약벌에 꼼짝 않고 서서 차렷 자세로 두세 시간씩 있어야만 했던 당시의 중고등학생들을. 머리가 길다고,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 구류를 살아야 하는 당시의 젊은이들을. 유신체제는 그런 끔찍한 정신분열의 매트릭스 독재체제였다.

* 학도호국단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순천10.19사건’이 발발한 이후 정부는 교원과 학생을 통제할 대책을 강구했다. 문교부는 1948년 12월부터 각 중등학교 학생 2,400여 명을 선발하고, 중앙학도훈련소에서 단기 군사훈련을 통해 간부로 육성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체육교사 387명에게 군사지식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한 후 각 학교에 배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9년 1월에 ‘학도호국단조직요령’을, 9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86호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에 의거해 중앙학도호국단을 비롯해 도와 시 그리고 각 대학에 호국단을 설립했는데,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조직했다.

학도호국단은 ‘학생층의 사상통일과 단체적 훈련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국가에 헌신봉사함’을 목적으로 했다. 학도호국단은 학생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주요 역할은 반공교육 실시와 민족의식 및 국가관 확립을 위한 학생자치훈련단체였다. 단련은 체조·교련·경기 등 체력단련 행사 개최, 행군·내한·내서·해양·산악훈련 개최, 방화훈련·모의훈련 개최, 학원·향토방위 훈련 등이었다. 단체작업은 근로 작업, 봉사 작업, 사육·청소·수리 작업, 기관지 발행 등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정부의 말단 기구로 간주했다. 4·19혁명 이후, 정부는 학도호국단을 이승만 체제의 유산으로 평가하고 1960년 5월 3일 해체를 결정했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학생들을 다시 조직화했다. 군부는 학풍 쇠퇴와 정신력 배양을 목적으로 ‘재건학생회’를 발족시키고, 유사한 역할을 대행시켰다. 문교부는 1975년 5월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 회의에서 학도호국단 창설을 논의하고, 9월에 전국중앙학도호국단을 발족시켰다. 고등학교 이상 각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도 구성원으로 포함되었다. 학도호국단은 약 10년 동안 운영되다가 1985년에 폐지되었다. 그러자 학생회가 활성화되었는데, 교련 훈련 등은 한동안 이어졌다.

*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이후부터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선포되기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민주화의 봄’이라고도 불리는데, 체코에서 발생했던 ‘프라하의 봄’을 비유한 것이다.

야당은 새로운 헌법에 의거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규하 권한대행이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정치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조치 위반자와 김대중의 사면복권, 학원의 자유 보장, 민주화 인사의 즉각 석방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그런데 야당은 18년여 만에 찾아온 변화의 시기를 정치 개헌과 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세력을 결집하지 못했다. 신군부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으며, 점진적으로 정국을 장악했다. 그리고 ‘5·17비상계엄확대조치’를 발표하여 정치권과 재야, 학원과 노동 분야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분출되었던 민주화, 자유화,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와 활동을 억압했다.

집권층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박정희가 살해당한 이후, 국민들은 ‘이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정의가 살아나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1968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시민들과 그 민주화의 봄을 소련군 탱크가 무자비하게 짓밟았듯 1980년 ‘서울의 봄’도 허망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박정희 1인 철권통치가 급격히 사라져버린 권력의 진공상태를 이용해 그의 충실한 부하들인 전두환 일당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동족을 대량으로 살상한 피 묻은 손으로 다시 권력을 강탈해갔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모인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전두환의 집권을 어떻게든 저지하려 했으나 그들의 역량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다. 18년에 걸친 오랜 군사독재 아래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꿈은 가졌으며 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힘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우리 국군이 총검으로 잔혹하게 살육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두환 일당이 권력을 장악한 후 이른바 ‘제5공화국’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한낱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말에 불과했다.

동서고금의 모든 독재권력이 그러했듯 그들은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보안사, 경찰 등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하수인으로 부리며 총칼과 물리력만으로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조금이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은 가차 없이 대학에서 해직시키고 사전검열을 거부하는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또한 수많은 잡지와 출판사를 폐간시키고 국민의 저항의식을 틀어막기 위해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이라는 명령을 하달해 기사의 크기와 내용 등까지 철저히 통제했다. 노동자들은 결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했으며 혹여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는 대낮에 테러를 당하거나 직장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나야 했다.

신군부는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확립하려면, 언론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이를 위해 신군부는 제도와 법률을 활용하여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신문협회로 하여금 1980년 7월 30일 '자율정화 결의'를 발표하게 했다. 이것은 언론인 933명을 강제 해직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문화공보부는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고, 11월에는 신문, 방송, 통신사의 폐지와 통폐합을 강제했다. 그리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2월 31일에 법률 제3347호로「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매일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했다. 이러한 언론 통제 정책은 전두환 정부 집권기 내내 계속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월간『말』지가 언론계에 보도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1986년에 기사화하여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일과 관련하여 김주언과 김태홍 등 언론인들이 구속되었다. 야당과 재야는 1983년부터 보도지침 폐지를 요구했는데,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 마침내 폐지되었다.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송두리째 억압당하는 이 '겨울공화국'이 지속되는 동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와, 절대권력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복무해야 할 언론은,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점차 총칼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나긴 '겨울공화국'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도 인간의 양심과 정의감은 결코 절멸하는 법이 없어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의지는 그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민주주의의 여린 새싹이 맨 먼저 솟아오른 곳은 대학교의 교정이었다.

2

민주영령,
교정에서 부활하다



민주영령, 교정에서 부활하다

속수무책 으로 군사정권의 재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대학생들은 그러나 전두환 일당이 남도 광주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학살만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1980년 5월 당시의 학생운동 중심부는 감옥에 갇히고 병영으로 끌려가는 등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보기관의 촉수를 피해 수많은 동아리와 소모임을 조직해 군사정권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꿈을 가꾸어 나갔다.

계엄군의 탱크 아래 무참히 짓밟혀 버린 서울의 봄은, 그 절망과 무기력 상태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던 것이다.

1980년 그해 가을, 교정에는 중무장한 전투경찰이 서슬 퍼렇게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동향을 낱낱이 살피고, 각종 정보기관 사복형사들의 감시의 눈이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경희대, 성대, 한신대, 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전두환 학살 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이 뿌려지고 대학살 이후 무덤처럼 적막한 침묵을 깨뜨리며 처음으로 대규모 학내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5·18민중항쟁 1주기를 기해 서울의 대부분 대학과 부산대 등에서 5월 한 달 내내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격렬한 집회가 계속되었다. 주모자는 물론 단순가담자들도 대부분 즉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체포, 구속되어 푸르른 젊음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음에도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사독재 타도’ 두 마디를 외치는 단 몇 분의 시위를 위해서는 제적과 징역에 대한 각오와 더불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를 필요로 했다. 1981년 5월 27일 김태훈(서울대 경제학과 4)은 교내 중앙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서너 번 외친 후 체포경찰을 피하다가 추락사하고 만다.

전두환 정권은 체포된 학생 가운데 일부를 경찰서에서 곧바로 병역법의 절차도 무시한 채 강제로 병영으로 끌고 가 변칙 입대시키고 국군보안사령부의 통제 아래 야만적인 감시와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모교의 학생운동을 탐지하는 밀정이 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이와 같은 일이다 ‘녹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자신의 안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학생들을 그들은 사상이 붉은 사람으로 보았으며 이들을 자신들의 교화로 파랗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 5·18민중항쟁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열망을 봉쇄했다. 5월 17일 자정을 전후해 전남대학교에 진주한 계엄군은 18일 아침 일찍 학교에 들어가려던 학생들을 제지하고 폭력을 가했다. 학생들은 이 일의 진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도심으로 진출했다. 이로 인해 도심 시위가 확산되자, 계엄군이 출동하여 학생과 시민을 총검과 진압봉 등으로 구타했다.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계엄군의 구타와 폭력 그리고 만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항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5월 19일 계엄군의 구타로 청각장애인 김경철이 사망했으며,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는 계엄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학생과 시민은「투사회보」등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신군부의 불법 행위와 계엄군의 폭력 및 잔인성을 규탄하면서 격렬히 저항했다.

5월 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리자 계엄군은 금남로를 메운 시민을 향해 총기를 집단으로 발포했다.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엄군을 압박했다. 그날 저녁 무렵 도심에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를 들고 나는 모든 출입로를 차단했다. 계엄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왕래하려던 시민들과 도시의 외곽에서 생활하던 시민들을 살해했으며, 계엄군들 사이에도 교전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슬기롭게 자치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습위원회들은 정부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무기를 먼저 반납할 것만을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5월 26일에는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도심 진출을 시도하여 시민 대표들이 ‘죽음의 행진’으로 이를 막아내기도 했다.

5월 27일 새벽 4시경, 계엄군은 전남도청과 그 일대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을 포위하고 총탄을 퍼부었다. 계엄군의 진압작전은 불과 1

시간여 만에 끝났고, 전남도청에는 시민들의 시신과 부상자로 즐비했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폭도’로 분류되어 압송되었다. 이렇게 5·18민중항쟁은 마무리되었으나, 바로 이어서 전개된 ‘5월운동’의 성과로 전두환·노태우 등 가해자들은 사법적 처벌을 받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 그리고 기념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강제 징집자 447명 가운데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나 아직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98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1981년 당시의 보안사령관이 녹화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 녹화사업

박정희 정부는 1964년 6·3한일회담반대운동이 확산되자, 7월 30일에 주동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군에 징집했다.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는 징집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전두환 정부도 1980년 9월 4일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학생운동 관련자 64명을 징집했으며,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으로 제도화시켰다. 보안사령부는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 전담과(심사과)를 설치하고, 강제 징집자와 정상 징집자 가운데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조사했다.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순화 작업을 시행한 후, 출신 대학교의 학원정보를 수집시켰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에 강제 징집된 인원은 1,152명이고, 이들 가운데 921명, 정상 입대자와 27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271명 등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이 실시되었다고 규명했다. 그리고 녹화사업 과정에서 성균관대 이윤성 외 5명의 의문사가 발생했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녹화사업은 1984년 3월 ‘제적생과 해직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모았고, 국회도 대정부 질의로 정치쟁점화했다. 녹화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그해 11월 13일 강제징집을 폐지하고, 12월 19일 보안사 심사과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1990년 ‘윤석양 양심선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은밀히 계속하고 있었다.

1983년 말에 이르자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제적생은 1,3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저항세력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살인마 정권’이라는 국제적 오명에 대한 미봉책으로 전두환은 이른바 ‘학원자율화 조치’를 단행한다. 이 조치의 내용은 학원에서 쫓아낸 교수와 학생들을 복직·복교시키고 학교 내에 상주하던 전투경찰을 철수시키는 일이었다.

감옥에서 학원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권의 강요에 의해 병영식으로 구성되었던 학도호국단을 학생회 조직으로 부활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은밀히 유비통신으로 떠도는 5·18민중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학생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선 자신들의 생활부터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성실성으로 규율했다. 당구를 비롯한 일체의 향락과 절연했으며 군사독재정권이 대중을 마취시키는 수단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라 하여 국민들이 열광하는 프로야구 시청도 하지 않고 운동화와 청바지 차림의 검소한 생활을 준수했다.

* 저항가요

저항가요는 통치체제나 권력의 지배노리를 비판·항거하는 내용이나 함의를 담은 노래이며, 민중가요로도 명명된다. 저항가요는 학생 운동 집단의 형성과 더불어 등장했으며, 대학생과 노동자 운동가들이 주로 애창하다가 시민들도 부르게 되었다. 민중의 능동성을 담보한 저항가요는 공동체 참여의 통로로 이해되었다.

저항가요가 고유성을 갖는 문화로 정착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무렵이었다. '우리의 소원'이나 '백치 아다다', '아리랑'과 같이 오래전부터 불리던 노래들에 저항의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있고, '친구'나 '아침이슬'과 같이 당시의 아픔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어 애창된 경우도 있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항가요는 엄혹한 권위주의 시기에 창작되었다. 저항가요는 1980년대 유화국면의 도래와 더불어 급속히 성장·확산되었으며, '그날이 오면'과 '벗이여 해방이 온다' 등과 같이 복잡한 내용을 담은 긴 노래들도 등장했다. 6월민주항쟁 이후에는 노동가요, 대중가요 영역에 진출한 저항가요, 그리고 대학생 중심의 저항가요로 분화되었다. 저항가요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퇴폐적인 대중가요 대신「님을 위한 행진곡」,「오월의 노래」,「농민가」,「스텐까라친」 등의 저항가요가 학생들의 애창곡으로 자리 잡아가자 전두환 정권은 이들 노래와 함께 엉뚱하게도「아침이슬」,「상록수」,「고래사냥」,「백치 아다다」 등 수많은 국민 애창곡을 금지곡으로 묶어버렸다. 젊은이의 기개와 내일의 꿈을 노래한 그 모든 음악들이 그들에게는 '불온'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이러는 사이에 학원 밖에서도 민주화운동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의 공개조직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출범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많은 민주화운동 조직이 탄생했다.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1983년 9월 30일 197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을 창립했다. 민청련은 전두환 정부 집권기에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주창하며 활동했던 첫 단체였다. 민청련은 '두꺼비'를 단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채택하고, 의장에 김근태를, 부의장에 장영달을 선출했다.

민청련은 민중운동의 방향 제시, 정세 분석, 관계 언론에 대한 대항 선전 폭로 등을 위해 1984년 3월부터 기관지『민주화의 길』(1-19호)을 발행했고,「민중신문」을 제작했으며, 5월에는 '광주항쟁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1985년에는 '민중민주화운동 탄압 전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활동력을 확대했다. 그러자 당국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의 배후로 민청련을 지목하고 탄압을 전면화했다. 관련자들은 9월에 대거 검거되었고, 공개적·합법적 공간을 상실하면서 위축되었다.

민청련은 1987년 중반까지 단체의 정당성과 관련자 석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6월민주항쟁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영향력을 넓혔다. 민청련은 1988년 9월에는 부설로 '민족민주운동연구소'를 창립했으며, 10월에는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했다. 1989년 1월 19일 민청련의 지역 조직들과 더불어 전국에서 활동 중이던 청년단체들은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를 만들었다. 민청련은 이 단체가 1992년 2월 23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로 개편하는 것에 맞추어 해산했다.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1984년 유화국면이 조성되면서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운동 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4년 6월 29일 결성되었던 '민중민주운동협의회'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였다. 이 외에도 재야인사들이 결집한 '민주통일국민회의'가 있었다. 1985년 2·12총선이 임박하자 재야 민주세력은 강력한 통합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1985년 3월 29일 두 단체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을 출범시켰다. 이어서 9월 20일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 개신교의 운동단체들을 포괄하여 제2

차 통합대회를 개최했다.

민통련은 통합선언문에서 “민중·민주·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출발할 것”임을 밝혔다. 민통련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저지 활동, 개헌운동, 대외 증속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활동에 주력했다. 1986년 인천5·3항쟁이 발발하자 당국은 민통련을 배후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민통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87년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할 수 있었으며, 노동자 대투쟁 국면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민통련은 1988년 1월 대통령 선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위원 전원을 인책하고, 국민에게 반성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통련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결성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 단체가 출범했던 1989년 1월 12일에 약 4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과 재야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연합하여 발족했던 재야정치단체이다. 1983년 5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김영삼은 ‘민주화 5개 사항’을 주장하면서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이후 연금이 해제된 김영삼을 중심으로 ‘민주산악회’가 결성되었고, 김대중 지지자들과 연대하여 1984년 5월 18일 민주협을 창립했다. 민주협은 1984년 말에 해금 인사들을 가입시켜 확대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신한민주당은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민주협은 해산하지 않고 한동안 신한민주당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으나, 김영삼이 신한민주당에 가입하면서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민주협은 원외의 큰 정치조직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며 재야민주단체와 연합해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면서 민주협의 기반과 역할도 붕괴되었고, 해체에 이르렀다.

* 민주협 창립선언문(일부)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임과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유신독재에 대한 전 민중적 항의와 열망의 표현으로 나타난 10·26사태를 민주주의로 수렴,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12·12사태, 5·17비상계엄조치, 광주이거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된 현 정권의 폭력과 기만에 의한 것으로써 그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민족사의 치욕임을 국민과 더불어 확인하는 바이다.

.....

현 정권의 소수의 부패한 특권층만을 위해서 절대다수 국민들을 핍박하고 수탈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군부독재를 청산해서,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민주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를 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다음과 같이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 민주화추진협의회 관련 보도지침 일부

- 1985.10.19. 김영삼, 이민우 민주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이 회견에 합류하려던 김대중, 문익환, 송건호 등 재야인사 가택연금, 이 회견과 관련된 미국무성 논평 등 3건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 1985.11. 1. 오늘 있는 김대중, 김영삼, 이민우 등 3자 회동한 사진은 실지 말도록
- 1985.11.12. 국회개헌특위 관계, 개헌이란 문구는 빼고 그냥 ‘특위’라고 할 것
- 1985.11.26. 앞으로 민주협 관계 움직임은 보도하지 말 것
- 1986. 1.14. 민정당 의원의 검찰출두는 사진을 쓰지 말 것. 민주인사의 움직임이나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진도 실지 말 것
- 1986. 1.20. 김대중 로이터통신과 회견한 내용, 일체 보도하지 말 것
- 1986. 3.31. 김대중, 김영삼은 대통령직 야욕 버려야, 이상의 내용은 눈에 띄게 보도할 것
- 1986. 5.20. 두 김씨 회동, 1면 2단 이하로 하고, 사진 쓰지 말 것

1985년에는 이들 부문과 전국 각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연합단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터무니없이 조작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국내외의 구명운동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김대중이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정치활동 재개를 준비했다.

그 당시 국민들은 말만 야당인 민한당과 국민당을 전두환이 급조한 여당인 민주정의당 1대대의 2중대와 3소대로 부르며 조롱했다. 두 김 씨가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모태로 창당한 신민당은 국민의 성원을 배경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그 2중대와 3소대를 단번에 꺾어 버리고 1985년 2·12총선에서 여당에 필적하는 의회세력을 확보했다. 사실상의 승리였던 것이다.

1985년, 광주항쟁 5주년 기간을 맞아 전국 80여 대학에서는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바로 그 기간인 5월 23일, 서울지역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미국문화원을 기습 점거해 사흘간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세계의 외신기자들이 모여들었다.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미국은 전두환 군사독재 지원을 중단하라!’

학생들이 창밖으로 플래카드를 내걸던 그 순간은 그동안 구석진 곳에서 귀엣말로 음울한 암호와도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광주사태’가 학생들의 구호에 의해 환한 대낮의 광장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의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드러내 놓고 ‘광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미 문화원점거농성—1985년 5월

학생들이 미 문화원에서 미국을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농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서 금기시되었던 ‘광주사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전두환 정부의 유화국면이 형성되던 시기에 각 대학들에서는 학생회가 부활했다. 1985년 3월부터 여러 대학들의 총학생회는 산하기

구로 민족통일·민중해방·민주쟁취 구현을 목표로 한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를 발족시켰다. 그해 4월에는 '전국학생총연합(전학연)'이 결성되었는데, 삼민투위를 그 산하 기구로 배치했다.

삼민투위는 5·18민중항쟁 계승기간을 맞아 5월 23~26일에 서울시 을지로1가 소재 미문화원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는 서울지역 5개 대학생 7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창문에 내걸었고, '광주학살원흉 처단투쟁위원회' 명의의 선언문을 배포했으며,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72시간 만에 농성을 자진 해산했으나, 경찰은 이들 모두를 연행하여 25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광주사태의 전모'를 발표했고, 미국대사도 '광주사태는 한국 내의 문제로 미국이 책임질 것이 없다'는 해명성 발언을 했다. 이 일은 학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6월 말까지 전국 19개 대학의 수사대상자 총 86명 가운데 63명을 검거하여 56명을 구속하고, 1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용공·이적단체 가입자로 규정했다.

*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1985년 서울시 소재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민주화를 촉구하려는 학생들의 활동이 연이어 발생했다. 1985년 11월 18일에는 '전국학생총연합'의 '민중민주정부 수립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 산하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의 서울지역 14개 대학생 191명이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본관을 점거했다. 민주정의당은 신군부가 1981년 1월에 창당했던 정당으로, 현직 대통령인 전두환이 총재였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내외신 기자회견과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리고 '시국선언문', '미국에 보내는 경고장', '신민당에 보내는 공개서한', '군부독재처단 결사투쟁 선언서' 이외에 여성문제와 관련된 성명서 등을 발표했으며, 7개의 현수막과 태극기 2장을 건물 벽에 부착했다. 경찰은 12개 중대 2,100여 명과 소방차 8대를 동원해 3차례 진입을 시도한 끝에 6시간 30분간 지속된 농성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했으며, 농성 학생 전원이 구속되었다.

학생들은 사흘 뒤 전원 체포 구속되었고 전두환은 이미 그의 충실한 나팔수로 전략한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들을 폭력적인 일부 좌경 불순분자로 매도했다. 그러나 신민당 의원 103명은 이에 자극받아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마지못해 사망 191명, 중상 122명, 경상 730명이라고 거짓사실을 밝혔지만 어쨌든 이는 '광주사태'의 총지휘자인 전두환 정권의 첫 공식발표였다.

이후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은 파죽지세로 뻗어 민정당연수원 등을 비롯해서 전두환의 정치적 거점인 많은 시설물이 점거당했다. 그러자 전두환은 '학원안정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해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학생시위를 원천봉쇄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반대와 여론악화에 부딪쳐 포기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1986년 새해가 밝자 2월 4일 서울의 14개 대학교 1천여 명이 서울대에 모여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전두환은 즉시 이들 가운데 189명을 무더기로 구속해 버렸다.

학생들의 개헌서명운동에 고무된 야당은 '2·12총선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정부 선택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찾을 것을 선언하고, 이후 3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대도시에서 차례로 개헌추진 집회를 열게 된다. 매년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드는

집회는 갈수록 열기가 크게 고조되어 갔다. 그럼에도 군사독재정권의 대응은 오로지 강경일로를 달릴 뿐이었다.

당연히 무더기 구속사태가 줄을 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민통련을 비롯한 모든 민주화운동 및 노동단체에 대해 그 관련자들을 모두 수배하거나 구속하는 한편, 단체 사무실 문을 강제로 폐쇄해 버렸다. 연말에 이르자 구속된 정치범은 3,400여 명에 이르러 감옥은 포화상태에 달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능력과 재판사무의 처리도 한계에 도달해 피구금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옥중투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구속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공연히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도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분신과 투신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점이었다.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가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을 향해 반미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 자결한 이후 박혜정, 이경환, 강상철 등이 양심선언을 남기고 자결했다. 민경교통의 택시운전기사 박종만, 신흥정밀의 박영진 등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분신 자결한 것을 비롯해 젊은 영농인들의 농정 항의 자결 등 무려 15건의 극한투쟁이 일어났다.

* 김세진, 이재호

김세진은 1965년 2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출생했으며, 1983년에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입학했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미생물학과 학회장과 자연대학 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이재호는 1965년 3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시에 출생하여 1983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1986년 3월부터는 '반전반핵 평화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세진과 이재호는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신림동 가두시위에서 군사정부의 유산이었던 대학생 전방 입소 반대와 반전·반핵 등을 외치며 분신 항거했다. 5월 3일 사망한 김세진은 경기도 광주시 판교공원묘지에 안장되었고, 5월 26일인 사망한 이재호는 광주시 망월동 소재 민족민주열사묘지 59-4번에 안장되었다. 1988년 4월 서울대학교 교정에 '민족해방열사 김세진·이재호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2001년 8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사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이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불법적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참혹한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인권옹호의 직무를 스스로 팽개친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청련 의장 김근태의 고문사건이다. 그는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공산주의자임을 시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전기고문 등을 받고 사경을 헤매이다 가까스로 재판에 회부된 후 이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간단히 묵살해버렸다.

* 김근태 고문사건

김근태는 1947년 2월 14일 경기도 부천에서 출생했으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에 '서울대 내란 음모사건' 관련자로 수배를 받았고, 1974년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수배되었다. 그는 1983년 9월에 결성되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초대와 2대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근태는 1985년 8월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배후 조종 혐의로 연행되었다. 그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날렸던 이근안을 비롯해 경찰들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로 인해 김근태는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석방 이후에도 김근태는 민주화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던 여러 단체들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옥고를 치렀다. 1995년 정계에 진출한 김근태는 민주당 등 정당의 부총재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2011년 12월 30일 고문후유증에 의한 뇌정맥혈전증으로 사망했다. 2012년 11월에 개봉되었던 정지영 감독의 작품 '남영동 1985'는 김근태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그의 부인 인재근은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3월 1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1985년 후반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주제 개헌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은 정치사회 내부의 타협을 모색하다가 점차 시민사회와 유리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지배 세력은 1986년 1월에 1989년까지 개헌논의를 유보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화운동 세력과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갈등적 협조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국은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인천5·3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활동이 불가능할 상태가 될 만큼 탄압했다. 그래서 민통련을 비롯하여 재야단체들과 신한민주당 그리고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망라하는 반독재 연합전선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1987년 5월 27일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했다. 국본은 '4·13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하고, 발기 선언에서 "지금까지 고립 분산적으로 표시되어오던 호헌반대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큰 물결로 결집시키고 국민 속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본은 6월 10일부터 개최되었던 집회와 시위의 주최단체로 역할하기 시작했고, '6·29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6월민주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외에도 정치적 노동운동을 표방하고 있던 '서울노동운동연합' 관련자의 국군보안사령부 불법납치와 고문,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서울대 제적학생으로 공장에 취업해 있던 권인숙에게 행한 성고문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임계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터무니없이 용공분자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에서 야만적인 고문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한 야당과 민주화운동 단체는 참혹한 인권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처음으로 '민주인사 용공조작 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함께 결성했다. 이 단체는 바로 이듬해 6월민주항쟁의 지도부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모태로서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로 발전하게 된다.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발기하면서(일부)

.....

민주화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대세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 분산적으로 표시되어 오던 호헌반대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큰 물결로 결집시키고, 국민을 향해, 국민 속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들

사제, 목사, 승려,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등 민주시민은 하나 되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쳐야 한다는 뜻에서「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설립을 발기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대통령 중심 직선제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곳이 비단 전두환 정권에 행동으로 직접 저항하는 학원가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야당 국회의원조차 늘 수사기관원에게 미행당했다. 수많은 출판사들은 전두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발행했다 하여 출판사의 재산인 책을 대량으로 압수당했다. 또 미술전시회의 그림이 강제철거당하는가 하면 교육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사들은 무더기로 해임당했다. 참다못한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민주화와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분신 등의 극한투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KBS가 뉴스시간을 알리는 “땡” 하는 시그널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 …” 하고 시작하는 극심한 편파보도를 야유해 ‘땡전뉴스’라고 불렀는데 드디어 KBS시청료 납부거부 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1986년 아시안게임이 9월 20일부터 보름간 열렸다. 한국은 우승국 중국에 금메달 1개가 모자라는 2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잠시 광주학살과 민주화투쟁을 잊고 대한민국의 대약진을 기뻐했다.

이 국민적 축제의 과정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은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은 관중이 없는 비인기 종목 등에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학생들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5공 정권 내내 전두환이 일곱 번이나 외국으로 나갈 때 무려 182만 명이나 동원되었다. 수업해야 할 시간에 전두환의 행차가 지나는 단 몇 초간 손을 흔들기 위해 도로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아시안 게임의 축제 분위기가 끝날 즈음인 10월 29일, 세계 사법사상 처음 있는 대기록이 발생했다. 이날 건국대 민주광장에서는 전국 29개 대학생 2,000여 명이 모여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만 있던 경찰병력이 이들을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이들을 포위하고 최루탄을 난사하며 학생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건물 안에 갇혀 버린 학생들은 안전귀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들을 느닷없이 신문방송을 통해 일제히 ‘친북 공산혁명 분자’라고 매도하면서 학생들이 갇혀 있는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사흘 동안 방치했다.

* 건국대 점거 농성

1986년 10월 28일 전국 26개 대학교 학생들이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결정에 따라 건국대학교에 집결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하는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을 발족하려고 했다. 행

사가 진행되자, 경찰 1,500여 명이 최루탄을 쏘고 해산작전을 폈다. 학생들은 진압에 저항하다가 본관 외 4개 건물로 피신했다. 학생들은 농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건국대학교는 경찰 병력 철수를 요청했으며, 학생들도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면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피신한 건물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를 취했다. 학생들은 먹지 못한 상태에서 추위에 떨다가 탈진했다. 경찰은 농성 4일째인 10월 31일 8,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최루탄과 소이탄을 쏘고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학생운동사상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1,525명을 연행했다. 검찰은 1,287명(10·28건대항쟁기림상에는 1,285명)에게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했다. 학생운동권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중노선의 재정립과 각계계층과의 연대 속에서 운동의 통일성을 추구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이들은 31일 헬기에서 쏘아대는 최루탄과 소방호스로 뿜는 최루액 세례를 받으며 기진맥진 상태로 전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학생 2천 명에 무려 8,5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작전이였다. 곧바로 경찰은 1,290명을 구속시켰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뒷날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도 희한한 일이 그 전날 일어났다.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금강산 댐 발전소 건설계획을 7개월 전인 4월에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장관이 10월 30일 저녁에 이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다. 금강산댐의 저수용량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를 일시에 방류한다면 서울과 중부지방은 수몰될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댐을 건설해 대비해야 한다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당장 서울이 수몰되기라도 할 듯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언론이 곧 장단을 맞춰 모든 방송과 신문은 댐 건설을 위한 모금운동에 직접 나섰다. 기업체를 선두로 공무원, 상인, 어린이의 코 뭍은 돈에서 해외동포, 재소자의 성금에 이르기까지 700억 원의 거액이 순식간에 모금되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평화의 댐’ 사건은 정권안보를 겨냥한 전두환의 사기극이었음이 몇 년 후에 낱낱이 드러났다. 1988년 세계에서 손꼽히는 언론인「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사상최대인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공사’라고 야유했으며, 1993년 감사원은 전면적 특감 이후 ‘완전히 조작된 정보에 의해 꾸며진 허구’임을 발표했다. 정권유지에 눈이 멀어 국민과 세계를 우롱한 이 ‘평화의 댐’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도 흉물스럽게 강원도의 경관을 욕되게 하며 방치되어 있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시대라면 모를까 미사일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20세기에 전 국민을 인질로 잡고 부도덕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사기극이 자행되고 국민의 눈귀를 오도한 언론이 이에 합세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치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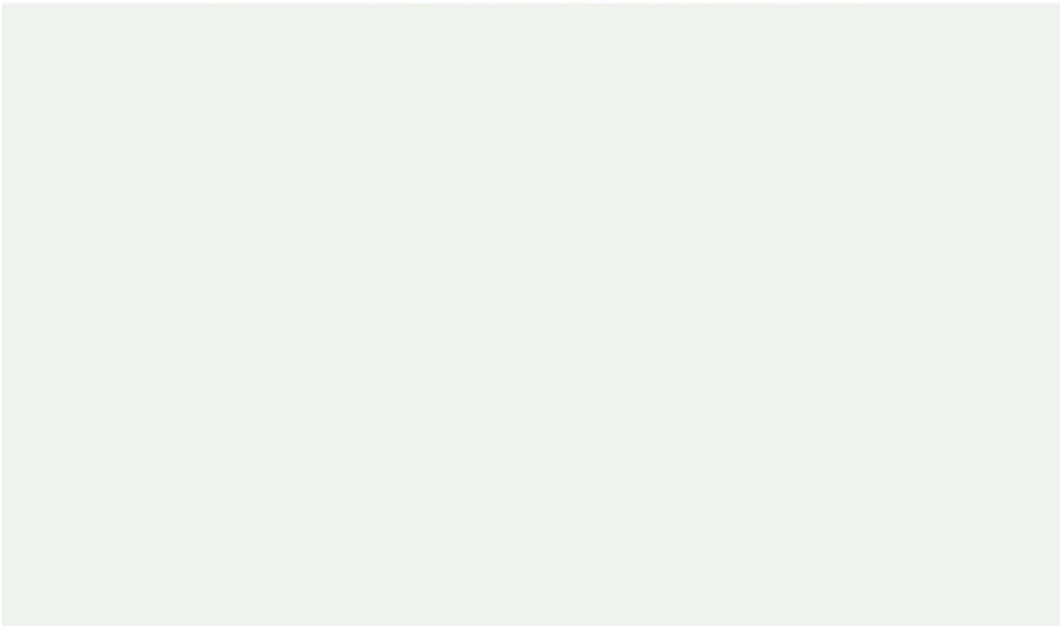
양심수들이 감옥에 넘쳐나고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경이 지나가는 젊은이의 가방을 수시로 뒤지는 풍경은 국민들에게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정치적 갈등과 저항이 끊임없이 분출한 1986년 그해 겨울은 몹시도 길고 추웠다. 영영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이 한파와 매운 바람은 칼날같이 매섭기만 했다.

3

아름다운 청년, 박종철



1987년 1월 14일 오전 8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은 학교 근처 신림동 자취방 앞에서 사복차림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그들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았다. 박종철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지원하는 가두시위로 붙잡혀 구류를 살았고, 1986년에는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집회와 가두시위에 참여한 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해 7월 15일에 출소하였다. 당시 그는 언어학과 학생 회장이었다.

그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철로변 근처의 진회색 벽돌로 된 건물로 끌려갔다. 일반 회사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치안본부가 대공혐의자를 수사할 때 쓰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사오 명의 수사관은 다짜고짜 그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대라고 추궁했다. 박종운은 박종철의 동아리 선배로 전두환 타도를 선동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주요 인물이었으며 경찰이 오래전부터 수배한 학생이었다.

* 박종철

박종철은 1964년 4월 1일 부산에서 출생했으며,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리 '대학문화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85년 서울미국문화원 농성 지지 가두시위로 구류 처분을 받았고, 다음 해 4월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화 요구 가두시위로 구속되었다. 1987년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그의 동아리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 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체포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박종철을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철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했고, 그가 실신하자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사건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했으며,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신을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사실을 폭로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박종철의 죽음은 이한열 피격 사건과 더불어 6월민주항쟁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2001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박종철의 죽음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했다. 1991년과 1997년 서울대학교 교정에 추모 식수, 식수비, 추모조형물이 건립되었고, 1993년에는 경기도 소재 마석모란공원에 그의 묘지(특3-2002)가 조성되었다. 모교인 부산해광고등학교에도 2004년 추모비가 건립되었고, 2007년에는 그가 죽음을 당했던 건물에 '박종철 기념관'이 개관했다.

* 남영동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시 용산구 남영길 10(갈월동 80번지)에 위치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이전 명칭으로, 공식명은 '치안본부 대

공분실'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 인접해 있으며,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검은 벽돌 건물이다. 1976년 5층으로 완공되었고, 1983년 7층으로 증축되었다. 오늘날 이 건물은 비슷한 높이의 건축물들 사이에 있으나, 출입문, 담, 건물, 창문 등에서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남산의 안전기획부, 서빙고동의 보안사령부와 더불어 1990년대까지도 공포정치의 산실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다. 이 건물은 간첩을 조사하기 위해 건립되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연행하여 폭력과 고문을 동반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김근태에 대한 고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등이 이곳에서 벌어졌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고, 간첩으로 낙인을 받았다. 경찰청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취지로 2008년 6월 10일 4층에 박종철 기념전시실을 개관했고, 509호를 사건 당시와 같이 재현했으며, 이후에 인권교육·전시관도 열었다.



●●● 민주열사 박종철의 비와 흉상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1997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인근에 추모비와 흉상을 건립했다. 추모비의 설계 구상은 홍성담이 담당했다. 추모비에는 물고문을 받는 장면을 형상화한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추모비 바로 옆에는 1991년에 심어진 추모나무와 식수비가 있다.



●●● 박종철 기념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로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당국은 이를 은폐하려 했으나,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6월민주항쟁을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2008년 6월 10일 박종철의 넋을 기리고 더 이상 고문이 없는 세상을 희망하면서 그가 유명을 달리했던 건물에 전시실을 개관했다.

박종철은 자신과 관련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잠시 안도한 후 모른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다른 친구와의 연락을 부탁하기 위해 박종철은 두 차례 박종철의 방에 다녀간 적이 있던 터였다. 수배학생을 체포하면 일 계급 특진에 현상금까지 붙어 있는지라, 이에 눈이 먼 수사관들은 수사실 안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박종철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채 겨드랑이를 잡고 등을 누른 상태로 머리를 욕조 속으로 반복해서 넣었다가 올리는 물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박종철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박종철의 다리를 들어 올려 상체를 물속에 더 깊이 처박았다 꺼내기를 반복했다. 이런 고문이 10여 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강도는 점점 더해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박종철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황급히 인근 중앙대 용산 병원 응급실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이미 박종철은 숨을 거둔 후였다. 그들은 당황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우선 시신을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지검에 시신 화장을 신청해보았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1월 15일 아침이 밝았다. 사건은 감쪽같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중앙일보 법조 출입기자 신성호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오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검찰 간부의 방을 지나치다가 어느 방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소리를 접했다. 경찰 큰일났다는 독백이었다.



●●● 박종철 추모비와 쉼터

1987년 1월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은 1983년에 부산시 보수동1가에 소재한 해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제28회 청룡동기회가 그의 모교 본관 앞에 2004년 1월 14일 쉼터를 조성하고, 해광고등학교총동창회가 같은 해 5월 18일 추모비를 세웠다.

당시에는 석간이었던「중앙일보」는 그날 사회면 2단 기사로「경찰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을 뽑았다. 특종이었다.

15일 밤 9시, 부검이 실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과장 황적준은 물고문 도중 목조에 목이 눌러 질식사한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황적준에게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은근히 협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동아일보」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부검에 참여한 박종철 삼촌의 증언을 인용해 고문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던 것이다.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여론이 들끓어 오르자 경찰은 하는 수없이 자체 수사에 들어갔다.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박종철의 사망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해명했다.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셔서 밥맛이 없다고 냉수를 달라고 하여 냉수를 몇 잔 마신 후 10시 15분경부터 심문을 시작, 박종운 군의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소리 지르며 쓰러

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에 사망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삼척동자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경찰의 발표는 가뜩이나 고조된 고문 의혹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다. 그동안 총칼 앞에 숨죽이던 신문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자 전 국민의 이목이 이 사건에 날카롭게 집중되었다. 1월 19일, 경찰은 하는 수 없이 고문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 그대 잘 가라,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고문에 참여한 조한경과 강진규는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 구속 수감되는 고문경찰의 얼굴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은 똑같은 베이지색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동료경찰 10여 명을 차에 같이 태웠다. 승합차 안에 얼굴을 반 이상 가린 채 똑같은 모양으로 웅크려 앉은 10여 명 가운데 누가 고문 경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모습은 할리우드의 어떤 갱스터 영화장면을 연상시켰다. 범죄집단의 이 같은 동료 감싸주기 행태는 국민의 맹비난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이러는 사이에 1월 16일, 박종철의 시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임진강 바람 속으로 날려갔다. 북녘 산하를 굽이 돌아 서울의 서북단으로 흘러 들어 서해에서 남녘의 한강과 합류하는 임진강의 날선 겨울 찬바람은 상처입은 짐승처럼 우수 울었다. 스물한 살의 아름다운 청년 박종철은 ‘한 뼨의 무덤조차 없이 언 강의 눈바람 속으로’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부산의 수도국에 근무하며 어렵게 아들을 가르치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를 뿌리면서 절규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전 국민의 가슴에 예리하게 저며 들었다. 겨울방학 중임에도 서울대 학생들은 추모집회를 열었고 많은 학생들이 운집했다. “우리의 종철이를 두 번 죽이지 마라!”,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며 학우들은 박종철의 영전에 시를 바쳤고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분노로 무장한 맨주먹을 쥐었다.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

—「헌시」중에서

박종철의 학과 선배인 장지희 양이 언어학과 사무실에 마련한 빈소를 밤새 지키며 쓴 추모시를 낭독하는 동안 서울대 교정은 모두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목들도 바람과 함께 매서운 소리로 날카롭게 울었다.

꽃상여 타고
그대 잘가라
세상의 모진 꿈만
꾸다 가는 그대
이 여름 불타는
버드나무 사이로
그대 잘 가라
꽃상여 타고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어이어이 큰 눈물
땅에 뿌리고
그대 잘가라
꽃상여 타고

서울대 노래 동아리 ‘메아리’의 회원인 박윤우가 작곡해 바친 추모가의 처연한 선율이 한겨울의 얼어붙은 창공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박종철의 몸은 꽃상여도 없이, 반독재 열정을 함께 했던 친구들의 환송도 없이, 홀로 임진강의 강바람 속으로 산산이 부서진 채 사라졌을 뿐이었다.

한없이 정의롭고 고결하되 또한 한없이 참혹한 이 죽음 앞에 맨 먼저 그 분노를 표현한 이들은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어머

니들이었다. 16일 오후에 하늘은 어두운 회색이었고 간간이 눈발이 날렸다.

어머니들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으로 몰려가 통곡하며 외쳤다.

“우리의 아들 박종철을 살려내라!”

“살인 수사 사주하는 군사독재 몰아내자!”

한 시간여의 시위 끝에 그들은 모두 용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서에 수용된 그들은 오히려 성명서를 경찰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김치 담그던 손으로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썼던 것이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1985년 5월 서울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구속된 학생들의 부모는 그해 8월에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를 결성하고, “더 이상 석방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식들의 뜻에 동참하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선언했다.

이 모임을 구심으로 ‘구속노동자가족협의회’, ‘청년민주인사가족협의회’, ‘장기수가족협의회’, ‘민주열사유자가족협의회’ 등 5개 분야의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민가협의 주요 사업은 석방사업, 양심수후원사업, 민주열사 추모사업 등이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발기문(일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그동안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활동해왔던 구속자 가족들의 힘을 한데 모아,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민주화의 대열에 함께 서기 위해 모였다.

.....

가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저들의 이간질과 분열책을 선연히 떨쳐버리고 가족 간의 이기심을 극복하여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적인 가족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양심수, 학부모, 노동자, 청년가족운동 등 각 현장에서 쌓아온 실천적 힘을 바탕으로 결집된 역량을 형성하여 민중민주민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적인 가족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를 발기하는 바이다.

.....

국민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원통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종철은 정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자 형제자매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고문 살인이 아니라 저 야수와 같은 군사독재가 국민의 힘으로 처단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죽음입니다. 군사독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러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문살인을 규탄하고 군사독재의 퇴진을 요구합시다.

한 줌도 안 되는 저 불의한 무리를 우리 손으로 몰아냅시다.

그들은 박종철의 죽음이 이 길고 어두운 군사독재의 밤을 끝장내는 새벽빛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침묵을 지키던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19일 유례없이 강력한 비난 성명을 채택했다. 변협은 검찰을 질타했다. ‘천인공노할 고문살인 범죄의 당사자인 경찰에게 자체 수사를 맡긴 것은 인권옹호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임을 비난하면서 국가공권력이 야만적인 가혹행위와 살인의 도구로 변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의 이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문 근절을 위한 전 국민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호소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목숨을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앗아간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적 사태를 향해 전 국민적 분노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각 사회단체와 정당, 종교인들은 이러한 고문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운동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그리고 곧 이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근태 의장을 고문한 김 전무(후일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밝혀짐)와 그 일당 8명의 고문경관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1월 27일에는 고문공청회를 개최해 그동안 고문받은 이들의 증언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고문살인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을 통해 박종철의 죽음이 ‘이 어두운 시대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양심의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진실의 철저한 규명, 고문 수사기관의 해체,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지학순 주교가 7월 23일 ‘유신헌법 무효’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자, 서울 등 각 지역에서는 기도회가 열렸고, 선언과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는데, 명의가 제각각이었다. 천주교 신도와 학생도 이 일을 규탄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했다.

각 교구 사제들은 정의로운 학생, 지성인, 종교인이 투옥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발언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여기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부 300여 명은 9월 24일 원주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에 합의하고, 사회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26일 발표한 ‘제1차 시국선언’에서 유신헌법 철폐 투쟁, 인권 유린에 대한 항의, 민주주의 창익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사회 실현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반대운동, 민주회복국민회 결성과 운영, 각종 연합체의 결성과 참여, 원주선언과 3·1민주구국선언, 자유언론 실천운동 지원을 비롯한 언론자유화,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결성과 개헌서명운동 주도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한 기도회 개최를 비롯해 김지하 구명운동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 진상규명 및 구명운동 등 수많은 인권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여 6월민주항쟁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항쟁에서 중요한 구심이 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 민주주의와 평화 구현을 목표로 활약하고 있다.

분노는 사회 각계각층과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힘을 모아 2월 7일과 박종철 군 49재 날인 3월 3일을 기해, ‘고 박종철 군 범국민추도회’를 개최했다. 서울의 종로 등 몇 곳에서 집회가 열렸으나 경찰의 한결 더 삼엄해진 경비와 대규모 최루탄 발사로 대

회는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수준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 조직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만이 군사독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분산된 투쟁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 대학생 조직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어세우는 노력에 진력하기 시작한다.

4

4·13호헌선언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4·13호헌선언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종철 군 추도집회인 2·7과 3·3대중집회를 성공적으로 봉쇄했다고 믿은 전두환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한다. 그는 자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들의 대부분이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며 기반 없는 야당이 이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그는 자신과 육사 동기이며 오래된 친구 사이이지만 자신을 깎듯이 각하라고 모셔주는 민정당 대표위원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로 작심한다. 그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의 개헌요구와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경찰력으로 봉쇄할 자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간단히 묵살했다.

* 하나회

1952년에 육군사관학교 제11기생(정규 육사 제1기생)으로 입교하고, 1955년에 졸업했던 영남 출신의 초급장교들이 1958년에 친목 모임으로 ‘오성회(五星會)’를 결성했다. 구성원은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백운택이었는데, 이들은 5·16군사정변을 지지했다. 이 모임은 1961년 말에 백운택 이외의 회원들과 손영길, 정호용, 권익현이 결합하여 ‘칠성회(七星會)’로 이어졌다. 1963년 2월 박갑룡, 노정기, 남중수가 추가 가입하여 10명이 되었고, ‘나라도 하나, 우정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하나회’로 명명했다.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 제8기생을 견제하면서 선배 장교들을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켰고, 엄격한 심사와 복잡한 절차를 걸쳐 각 기수별로 10여 명을 선별하여 가입시켰다.

하나회는 윤필용을 구심으로 군부의 중요 세력으로 성장하고, 중앙정보부와 연계되어갔다. 그러자 박정희는 1973년 4월 ‘윤필용 사건’을 통해 하나회를 약화시켰는데,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1979년 10월 대통령 유고 시 하나회 구성원들이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하나회 구성원들은 요직에 임명되었고, 전역 후에는 장관과 국회의원 등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군부의 유산을 청산하고, 군부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군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하나회에 대한 숙군을 단행하여 군정 종식의 공약을 실현했고,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은 12·12군사반란과 5·18민중항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했다.

전두환은 4월 13일 드디어 이른바 ‘호헌선언’을 발표하면서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시켰다. 아무런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아니한 전두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대통령 선거인단이 체육관

에 모여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으로 다시 군사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선언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절망했다.


이 호헌선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반공총연맹, 한국노총, 한국문인협회 등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는 이들 어용단체를 조롱했다.




바로 이런 때에 교과서에 그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는 미당 서정주는 독재자 전두환의 생일에 맞추어 '단군 이래 최대의 미소를 지닌 대통령'이라고 칭송하며 그를 향해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라고 찬양가를 바쳐 평소 그의 시를 애송하는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민주화운동의 구심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비롯한 많은 재야단체는 4·13호헌선언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반독재 투쟁에 총궐기하는 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개헌투쟁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일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민통련은 4월 19일, 4월혁명 27주년에 즈음한 집회계획 등을 진행하였다. 함석헌, 문익환, 박형규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폭력적 호헌저지와 민주적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운동을 염원하는 무기한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때 야당인 신민당 의원 일부가 전두환의 호헌선언에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새로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고 총재인 김영삼은 체육관선거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재야민주세력은 군사독재와 더러운 야합을 일삼는 일부 당내의 모리배를 떨쳐내고 새출발하는 야당에게 군사독재와 타협하면 우리의 적일 것이며 그들과 맞서 투쟁하면 우리의 동지가 될 것이라고 한껏 야당 정치권을 격려했다.

* 함석헌

신천(信天) 함석헌은 1901년 3월 13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했으며, 1919년 평양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태극기를 만들어 3·1운동을 벌였다. 오산학교에서 만난 유명모의 영향으로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유학했으며, 성서를 공부했다. 30대 중반에는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연재했다. 일제 말에는 ‘성서조선사건’으로 수감되었다. 해방 후 ‘신의주학생사건’의 배후 주모자로 소련군사령부에 구금됐던 함석헌은 남하하여 민중계몽에 힘쓰고, 씨  농장을 만들어 같이 살기운동을 벌였다.

함석헌이 민주화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이승만 정부 말기였다. 그는 1958년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20일 동안 구금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언론수호대책위원회, 3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민주회복국민회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76년 명동사건, 1979년 YMCA 위장결혼식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다. 또한 1970년에 『씨 』를 창간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했다. 1984년에 민주통일국민회의 고문을 역임했던 함석헌은 고전연구를 통해 씨  을 깨우치고, 마지막까지 절대 평화주의 반전비폭력 씨  사상을 주장하다가 1989년 2월 4일 사망했다. 1987년 제1회 인촌상을, 2002년 건국훈장을 수상했다. 그의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서울시 혜화동 대학로에 함석헌 시비(그 사람을 가졌는가)가 세워져 있다.

* 문익환

늦봄 문익환은 1918년 6월 1일 만주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했다. 명동학교, 은진중학교, 평양숭실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일본 동경신

학교, 한국신학대학, 미국 프린스턴(Princeton)신학교에서 공부했다. 1955년부터 한빛교회 목사와 한국신학대학 교수를 지냈다. 1968년부터 신구교 공동구역번역 책임위원을 맡아 성서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시를 쓰기도 했다. 1976년 '3·1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여 구속된 이래 18년 동안 여섯 차례 구속되었고, 11년 2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1978년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여 형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되었다가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에 석방되었다.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어 1982년 12월에 출옥했다.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으로 1985년 '인천5·3항쟁'과 관련해 구속되었다가 6월민주항쟁 이후 석방되었다. 1987년 12월 대통령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단식투쟁을 벌였고,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을 지냈다.

문익환은 1989년 3월 25일 정경모·유원호 일행과 방북했는데, 황석영은 3월 20일 방북한 상태였다.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며, 4월 2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의 기초가 되었다. 문익환은 4월 13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다가 구속되었고, 1990년 10월에 석방되었다. 1991년 이른바 '분신정국'에서 장례집행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다가 재수감되었다. 1992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1993년 3월 출옥했다. 1994년 통일맞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새로운 통일운동체' 결성을 주도하다가 1994년 1월 18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1996년부터 생전의 문익환의 뜻을 기려 '통일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2007년 6월과 2008년 6월 한신대학교 교정에 기념비와 시비가 건립되었다.

* 박형규

박형규는 1923년 12월 7일 경남 창원군 진북면 영학리에서 출생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의 유니온(Union)신학교에서 신학으로 두 번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서울공덕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4·19혁명을 경험했다. 이때 큰 충격을 받고 '교회로 하여금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기독교사상』 주간, 기독교방송(CBS) 상무를 거쳐 서울제일교회 목사로 봉직하면서 기독교갱생운동에 헌신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빈민선교와 인권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여섯 차례 투옥되었다. 1973년 '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과 '기독교장로회 청년 전주시위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형규는 전두환 정부에서도 모진 탄압을 받아 서울제일교회 신도들과 6년 동안 길거리 예배를 드려야 했다. 1992년 목회 활동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에는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성명과 단식, 기도회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농민, 교사, 문화예술인, 여성단체를 가릴 것 없이 차례차례 모두 동참하면서 호헌철폐 요구는 점차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동의와 행동을 보여주기에 아직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조바심과 초조함을 한 순간에 뒤엎어버린 사건이 5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 사제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문살인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의 감방에 수감된 두 경찰관은 무엇이 서럽고 원통한지 자주 한숨을 쉬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몇 시간씩 밖을 향해 서 있곤 했다. 그러다가 자주 울었다.

마침 바로 그 옆방에는 동아일보 해직기자로써 민통련 사무처장을 지내던 중 수감된 이부영이 있었다. 어느 날 이부영은 교도관을 통해 그 두 경찰이 억울하다는 말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이부영은 교도관을 통해 간접대화를 시도한다. 그는 직

감으로 뭔가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고 두 경관에게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 직후에 아니나 다를까 치안본부의 높으신 분들이 문턱이 닳도록 자주 두 경찰관에게 면회를 왔다. 면회 시의 대화내용은 이부영에게 감화를 받은 교도관에 의해 낱낱이 그에게 전해졌다. 이부영은 기자 특유의 순발력과 상상력을 구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했다.

드디어 그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둘이 아닌 다섯 명이며 이러한 사실은 으페 조작한 것은 상부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임이 확실했다. 이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의 폭풍 같은 파장을 두려워한 경찰 고위층은 두 경관을 회유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 이부영

청우(靑牛) 이부영은 1942년 9월 26일 경기도 포천군에서 출생했다.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입사해 언론인이 되었다. 1974년 결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가 1975년에 해직되었고,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7년간 수감되었다. 그는 1984년부터 사회운동을 재개하여 1984년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1986년 '인천5·3항쟁'에 연루되어 1988년 2월까지, 이어서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운동으로 복역했다.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으로 수감되었다.

이부영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합류하여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991년 민주당 부총재와 최고위원이 되었고, 제14~16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에서 부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5년 2월 11일 정계를 떠났다.

이부영은 이 같은 전후사정을 두루마리 휴지에 깨알글씨로 적어 밖으로 내보냈다. 수배 중인 이부영을 숨겨준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전병용은 전직 교도관 출신이었으므로 구치소 내에 인맥이 있었다. 전병용은 이를 1970, 8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의 숨은 주역인 김정남에게 전달한 이틀 후에 붙잡혔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감방 안의 이부영은 극도의 불안감과 위기감에 시달렸다. 일이 탄로나 사전에 들켜버릴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쪽지가 전달된 이후에 곧바로 조한경과 강진규 두 고문 경관은 의정부로 이감을 갔다.

또 하나의 위기는 이부영 옆방의 국회의원 유성환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그는 감방동지 입장에서 어렵사리 털어놓은 이부영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재판 과정을 통해 법정에서 폭로하겠노라고 호언했다. 이부영은 이를 말리느라 애를 먹었다. 다혈질인 유성환 의원은 그러나 다행히도 이부영의 말을 따라주었다.

* 김수환

1922년 7월 2일 대구시 남산동의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출생했으며, 세례명은 스테파노이다. 1933년 성유스티노신학교에서 공부했고, 1941년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조치(上智)대학에 진학했다. 1944년 학도병에 징집되어 장교로 근무했다. 1945년 9월 귀국해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했으며, 1951년 9월 15일 대구시 소재 계산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김수환은 안동성당에서 사목생활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직위에서 봉직했고, 1966년 2월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마산교구장 초대 주교로 임명되었다. 1968년 4월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서임되었고, 1969년 3월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이후 천주교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유신체제를 강력히 비판했고,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탄원했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에 대한 탄원서에도 서명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감시를 받았지만, 박정희 죽음에 대해 '인간 박정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추모사를 하여 화제가 되었다.

5·18민중항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구호활동비를 전달했고, 관련자들의 석방과 신원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재야인사로 활동을 했던 김수환은 1987년 '4·13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미사를 했으며, 6월민주항쟁 기간 동안에는 경찰이 명동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여 성지의 위상을 높였다. 김수환은 민주화·인권·평화·통일운동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말년에는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9년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의 장례식은 교황장으로 치러졌고, 2월 20일 서울대교구 용인 천주교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 김승훈 신부

5월 18일 18시 반, 명동성당에서는 신도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5·18민중항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가 열렸다. 미사가 끝나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김승훈 신부가 단상으로 올랐다. 김승훈 신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평소와 같이 매우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한 장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동시에 아직 잉크냄새가 배어 있는 탁블로이드판의 성명서가 미사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다.」

* 김승훈

김승훈은 1939년 7월 6일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했으며, 세례명은 마티아이다. 해방 이후 서울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을 졸업하고 1962년 서울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62년 12월 신당동성당 보좌신부로 첫 미사를 집전했으며, 서울 혜화동성당, 아현동성당, 경기도 동두천성당 등에도 부임했다. 1970년대 초 건강상 부산 태종대 공소에서 요양하다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2년 1월 서울 신림동성당 주임신부가 된 김승훈은 1974년 9월 23일 결성되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전국사제단)'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그는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에서 3·1정신에 입각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강론하여 불구속 입건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전국사제단의 중요 인사들이 구속되자 역할을 대신했다. 이후에도 그의 민주화운동과 수난은 계속되어 1979년 'YWCA 위장결혼식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80년 '김내중내란음모사건'으로 54일간 구금되었으며, 1982년 '반미성명서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김승훈은 1987년 5·18민중항쟁 제7주기 기념미사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이 조작된 사실임을 밝혀 6월민주항쟁이 발생했던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 1985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1988년 전국사제단 대표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심으로 평생을 보냈던 김승훈은 2003년 9월 2일 사망했다.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지냈고, 서울대교구 용인 천주교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성명의 제목을 본 신도들은 경악했다. 곧바로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국민들은 사제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토록 부도덕한 집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틀 후에 검찰은 사제단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세 고문 경찰을 추가로 구속한다. 그러나 이로써 종결될 듯이 보인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진실의 전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이 이미 이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론의 집요한 추적보도로 인해 여론이 비등해지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대검 중앙수사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폐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한 박처원 치안감 등 3명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문살인도 모자라 국민을 우롱한 거짓말까지 일삼는 정권 핵심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좀체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두환은 강경파로 알려진 장세동 안기부장과 내각 책임자인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5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뜻을 올리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뜻을 올리다

사제단의 폭로가 있는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7일 새벽.

서울 도심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희미한 새벽 빛이 일어나면서 가로등 빛이 마약 스러지려는 즈음 종로 일대의 뒷골목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무리지어 여러 군데 모여 있었다. 전령사인 듯한 청년 두어 명이 파고다공원 앞과 인사동 골목을 지나며 말없이 작은 쪽지를 건네주고 재빠르게 사라졌다.



●●● 6월민주항쟁 기념비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 중구 소재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6월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구심이 공식 출범했음을 의미했다.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독교위원회'는 이를 기념하여 2007년 6월 3일 향린교회 정문에 기념 동판을 설치했다.

* 향린교회

향린교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한다. 이 교회는 1953년 5월 17일 안병무와 홍창의 등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던 12명의 평신도들이 새로운 신앙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했다. 생활공동체, 입체적 선교공동체, 평신도교회, 독립교회가 창립정신이며, 교회명은 "향기 나는 이웃"이 되겠다는 의미다. 신도 수가 늘어나면서 1959년 한국기독교장로회에 가입했고, 1974년 김호식을 초대 목사로 초빙하여 일반교회의 형태로 전환했다.

1987년 5월 27일 6월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를 기념하여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독교위원회'는 2007년 6월 3일 향린교회 정문 기둥에 "6월민주항쟁 기념비"라는 동판을 부착했다. 향린교회는 오늘날에도 기독교 정신에 따른 활발한 사회참여와 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대,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목회운영위원회 조직과 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도입 등 민주적인 교회 운영방식과 투명한 재정공개로 정평이 있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진보적

시각을 보이며, 국악 찬송가를 사용하는 등 국악예배를 보급하는 일도 주도했다.



●●● 유월항쟁진원지 표지석

1987년 6월 10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전국에서 6월민주항쟁이 전개되었다.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 6월 10일 서울대성당 성전 뒤편에 표지석을 세웠다.

쪽지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말이 없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쪽지를 펴본 이들이 모두 을지로 2가를 향해 쟁결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였다.

청년이 여러 곳에 전해 준 쪽지에는 딱 네 글자만 씌어 있었다. '향린교회.' 같은 시각, 덕수궁 옆 성공회 대성당과 종로 5가 기독교회관, 그리고 명동성당,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선교교육원 등의 건물 앞에는 2백여 명의 전투경찰이 건물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모두 재야단체들이 집회나 농성장소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경찰이나 안기부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였다.



●●●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절규하는 시민

7시 전후로 명동성당 맞은편 골목에 위치한 향린교회로 모여든 이들은 150여 명이였다. 모두 하나같이 담당형사가 따라다니는 경찰의 감시대상자들이였다.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는 정각 8시에 시작해 개회사, 경과보고, 발기취지문 낭독,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집행위원 선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래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결성대회 역시 즉석회의에서 바로 연이어 결행하기로 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결성선언문을 낭독했다.

조직의 명칭이 너무 길고 뜻이 중복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름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로 수정 확정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국본의 결성대회가 끝나갈 무렵에야 경찰이 향린교회 마당으로 헬레벌떡 들이닥친 일이었다. 150여 명의 요시찰 인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쪽같이 미행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집회 날짜와 시각은 정해 놓되 장소만은 미정인 채로 당일 새벽에 전령들이 전하기로 했던 까닭이었다. 007작전을 방불케 한 이날의 작전이 성공한 것에 모두 미소를 지었다. 좋은 조짐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의 한 시간여에 걸친 이 대회가 향후 한국의 현대사를 바꾸어 놓는 일대 사건이 될 줄은 그날 참석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

국본은 야당과 각 부문별 모든 재야 민주화운동 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 쟁취’라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로 연합한 광복 이후의 가장 큰 조직이었다. 후일의 학자들 중에는 이 기구를 일제 치하인 1927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조선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파의 차이를 초월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한 ‘신간회’에 비유하기도 한다.

국본은 결의문을 통해 4·13독재헌법 옹호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이므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고 광주사태 진상규명, 고문살인 범인의 색출처단, 민주인사에 대한 연금·구속·공민권 박탈의 중지, 국영·관영방송의 거짓선전에 대한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 다름 아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자신만이 허위와 기만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킬 수 있는 주인임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대회 직후 집행실무기구인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된 30여 명은 곧바로 긴 회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박종철 군 고문살인과 은폐조작을 규탄하며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취지의 대중 집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철저히 평화적인 집회가 되는 방법을 강구한다. 날짜는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민정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가 잠실체육관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바로 그날 6월 10일을 택한다. 불과 14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종로 5가 기독교회관 310호에 입주한 이후 매일 마라톤 회의를 계속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행동 지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면서 철

저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종전의 집회와는 달리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인 오후 6시로 집회시간을 정한다. 그 시각에 차량 안에 있을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고안하고 노래 역시 저항적인 운동가요 대신 애국가를 부르기로 결정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의 참여방법을 연구한 끝에 ‘땡전뉴스’ 시각인 밤 9시에는 일제히 소등함으로써 평화적 저항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알릴 방법이었는데 힘 있는 언론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으므로 국본은 자체적으로 전단을 대량 제작해 대대적으로 뿌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연일 전국 각 지역의 지부 조직과 노동자위원회, 학생위원회 등 부문별 조직을 건설해 나갔다. 22개 시와 도 지부가 속속 결성되면서 국민들의 호응도 날로 뜨거워갔다. 국본 통장으로 엄청난 민주성금이 모였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같은 일이었다.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라는 긴 이름의 집회가 6월 10일로 정해지고 2~3일 전부터 거리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이런 분위기를 선도한 것은 역시 학생운동이었다.

학생운동은 1986년 5월 3일의 개헌촉구 집회였던 5·3인천투쟁과 1986년 10월의 건국대 농성항쟁을 거치면서 1천 5백여 명이 군사정권의 좌경용공 매도에 속절없이 구속당하기만 한 이후 깊은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군사정권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종철사건 이후의 정국 전개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한 사람이 열 걸음 앞서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자각했다.



●●● 10·28건대항쟁기림상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와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가 학생과 동문의 성금을 모아 1991년 10월 28일 이 상을 건립했다. 기림상 옆에는 1988년에 건립된 ‘10·28건대항쟁 기림비’가 있다.

* 인천5·3항쟁

1986년 1월 전두환 정부와 민주정의당이 개헌 논의를 유보하자, 신한민주당은 재야와 더불어 직선제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들

어갔다. 정권은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리를 획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신한민주당 총재를 통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정세에서 신한민주당은 1986년 5월 3일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하려 했다. 신한민주당은 인천 시민회관에서 지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는데, 여기에 재야·학생·노동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야당의 타협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위를 벌였다.

10,000여 명의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현판식은 무산되었다. 대회장에는 50여 종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대부분이 신한민주당의 야합성을 비판하고 보수대연합을 규탄하며 반미·반파쇼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당국은 공간기관을 동원하여 민주화운동 진영에 총공세를 펼쳤다. 그리하여 장기표 등 총 319명을 연행했고 129명을 구속시켰으며 37명에게 수배를 내렸다. 이 사건은 신한민주당과 재야 및 민주화운동 진영 사이에 앙금을 남겼다.

1987년 벽두 학생운동의 최대 화두는 국민과 대중이었다. 그들은 맨 먼저 학생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학생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선거 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한 예로 서강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열면서 회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민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유회해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며칠 후에는 대거 참석했으며, 구경하던 학생들도 슬금슬금 집회에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학생들은 일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6년까지만 해도 서울과 지방의 주요 대학들이 학생운동을 선도적으로 끌어갔지만 1987년 들어서부터는 학생운동의 전국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두환 정권이 알 리 만무했다.

이 힘을 근간으로 학생운동은 마침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결성하게 된다. 1987년 치안본부 통계연감에 의하면 4·19혁명 기념주간인 4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전국 47개 대학 2만 7천 명이, 19일에는 38개 대학 1만 5천 명이 가담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5월 23일, 5·18민중항쟁 영령추모제가 탑골공원 앞에서 있던 날 서울시내 학생들은 귀중한 체험을 한다. 2시 정각, 누군가의 호루라기 신호에 맞추어 종로통의 행인 가운데 섞여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차도로 뛰어들어 ‘박종철을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절규한다.

중무장한 전경들이 방패를 앞세워 가로막고 연행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일제히 옆 사람과 양팔을 끼고 도로 위에 누워버린다. 여름을 알리는 비가 흥건히 내리고 있었다. 전경들의 방패가 날아들어 몸을 내리찍기 시작하자 연도의 시민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다가 용감한 사람 몇몇이 나서서 전경을 야단친다. 학생들이 돌을 던졌느냐, 화염병을 가지고 있느냐, 왜 때리느냐고. 그러자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친다. 순간 전경들은 모두 멈칫한다.

비 내리는 아스팔트 위에 누운 학생들의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교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끼리끼리 몇 분이나마 외치다가 짐승처럼 전경에게 끌려가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또한 수배 중인 친구들 대부분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다. 감동의 눈물은 이내 빗물과 섞여 목덜미를 적셨다. 이날의 평화적 시위는 시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아무도 구속되거나 구류에 넘겨지지 않았다. 맨손의 평화적 시위를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연행한 1,300명의 학생과 시민들을 모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 거둔 작은 승리로부터 학생들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민주화운동이야말로 철저히 국민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한 그들은 한결 자신감을 얻었다.

그들은 국본이 대회 날로 잡은 6월 10일을 나흘 앞두고 각 학교별로 '총궐기 결의대회'를 갖고 군부독재의 파열음을 예감한다. 대회 이틀 전부터 거리에는 6·10국민대회를 알리는 전단이 신문사의 호외처럼 날려 다녔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는 좌경세력의 불법집회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참여자는 의법 처단할 것을 협박하는 가운데 마침내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6

찬연한 초여름, 씨머타임



6월 10일 정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호화찬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민정당 대의원 등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당대의 내로라하는 인기가수들과 치어리더들의 노래와 춤이 무르익는 중이었다.

7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투표결과 노태우 대표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를 알리는 방송을 신호탄으로 천정에 매달린 초대형 바구니가 벌어지면서 오색 빛나는 꽃가루가 흩뿌려지고 있었다. 이에 맞추어 요란한 음악 속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손을 치켜들고 연단으로 나섰다. 12·12군사반란의 주역이며 5·18민중항쟁을 국군의 총검으로 학살한 피 묻은 손을 맞잡고 두 사람은 환호했다.

이제 누가 봐도 그들 간의 권력의 안정적인 세습은 시대의 대세로 보였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시청 맞은편 성공회 대성당의 종루에서는 웅장한 종소리가 도심을 울리고 있었다. 종은 마흔두 번 울렸다.

분단과 독재의 세월을 의미했다. 타종이 끝나자 성능 좋은 마이크를 타고 결연한 목소리로 짧은 성명이 흘러나왔다.



●●● 전두환·노태우—환호하는 12·12의 두 주역

국민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민정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이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수사기관의 가택연금과 미행을 기상천외한 요령으로 따돌린 뒤 철통같은 경비망을 뚫고 대회장인 성공회 대성당에 진입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본 집행부의 목소리는 찌렁찌렁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울려 퍼졌다.

상임집행위원 두 사람은 타종을 마치고 종루 위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빛나는 초여름이었다. 대성당 주변 신록들은 쥐어짜면 금방 초록물이 뚝뚝 흐를 듯이 푸르렀고 태양은 개선장군마냥 위풍당당하게 창공을 제압하고 있었다. 종탑 위로 비둘기 떼가 날갯소리를 내며 힘차게 비상했다.

사흘 전부터 시작된 경찰의 삼엄한 원천봉쇄 조치로 인해 대회장인 성공회 대성당으로 들어오지 못한 대부분의 국본 집행부 역시 본부 사무실인 기독교회관 마이크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1919년 3월 조선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고한 기미독립선언문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



●●● 최루탄을 쏘지마!—비닐 봉지를 쓴 시민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제단에 피 뿌린 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천한 온 국민의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 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

그러나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와 결의를 기다리는 것은 전국 주요 대도시를 장악한 경찰 병력이었다. 경찰은 전국의 110개 대학가를 수색하여 플래카드와 확성기 등 시위용품을 압수해 갔으며,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수시로 젊은이의 가방을 털어보는가 하면 여러 인쇄소 골목마다 수색을 이 잡듯이 행하고 있었다. 택시와 버스회사 업주들은 경찰의 요구대로 경음기를 떼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막강한 물리력에 맞서는 것은 오직 비무장 비폭력의 맨 몸일 뿐이었다. 국본은 국민행동 강령을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했다.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하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한 결과 몇 가지 수칙을 정했다.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시작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 제창, 애국가가 끝난 후의 1분간 차량경적 울리기, 교회·사찰·성당의 일제 타종, 밤 9시 뉴스 시청 거부 의미로 10분간 소등하기, 여성들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보라색 수건 흔들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윽고 오후 6시가 되었다.

모든 관공서는 시민 참여를 막기 위해 매일 시행하던 국기 하강식을 생략했다.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의 역을 정차하지 않고 내리 달렸다. 오후 6시라 하지만 해는 아직 중천에 있었다. 정부는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리 연습조로 국민들에게 매우 낮은 써머타임제(낮이 긴 계절에 한 시간 먼저 일과를 시작해 업무를 한 시간 먼저 끝내고 남은 시간을 여가 활동에 쓰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도심의 사무실에서 퇴근한 젊은 사무직 노동자들은 모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았고 버스는 도심 진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연적으로 대부분 퇴근시간 후에 사무실이나 거리에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학생들과 함께 이후 전개되는 6월민주항쟁의 중심세력이 된다.



●●● 1987년 6월 10일 밤, 경찰과의 싸움이 치열해지자 시위대가 대오를 정비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정각 6시, 서울 도심은 온통 애국가 소리에 파묻혔다. 사방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고 서울 역과 남대문 쪽에 집결해 있던 여성들이 보라색 스카프를 흔들며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들의 경적을 유도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눈물이 절로 나는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맨 먼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차도로 나온 것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근 사무실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무직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합류하기 시작하자 인파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 이문역에서는 근처 외국어대와 경희대 학생들 1천여 명이 의정부 발 인천행

전동차를 강제로 세운 뒤 올라타고 시내까지 진출을 시도했다. 전동차가 시청역과 서울역을 정차하지 않고 남영역에 서자 그들은 전동차에서 내려 일제히 철로변의 자갈을 들고 서울역으로 진출,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서울역을 비롯해 남대문시장 일대와 을지로, 종로 등지에서 경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자 가게 상인들은 쫓기는 학생들을 셔터를 올린 후 숨겨주고 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3시간의 공방은 적군과 아군의 시가전처럼 치열했다. 국본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밤 9시가 되자 아파트 여러 곳에서 불이 꺼지고 서울 도심의 공방은 더 격렬해졌다.

퇴계로·충무로 파출소 등이 시위대에 점거되면서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전두환의 초상화가 바닥에 박살나기도 했다. 회현동 고가도로 아래서는 인근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무장해제당한 전경과 함께 ‘민주주의 만세!’를 합창하기도 했다.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 22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시위참여자 24만 명 가운데 3,831명을 연행했다고 축소 발표했다.

이 사태는 대회 주최 측인 국본과 마찬가지로 민정당 사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폭력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이 견제하는 한 전두환 세력은 그들의 안전이 영원할 것이라 굳세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을 미리 축하하는 연회를 서울역 건너편 남산 초입의 호화로운 힐튼호텔에서 거행하고 있던 민정당 사람들은 영롱한 빛을 반사하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발바닥을 간질이는 부드러운 양탄자 위에서 달콤한 샴페인에 취해 있다가 모두 순식간에 최루가스를 마셔야 했다. 서울을 뒤덮은 최루탄 가스는 공평하게 힐튼호텔 안으로도 스며들었다.

국본 집행부 또한 대회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날이 2주 이상 격화될 현대 정치사의 분수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조짐은 아무도, 심지어 이날 밤 늦게 명동성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 성공회 대성단에서 대회를 강행한 이후 거리로 진출하다가 곧바로 체포되어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시가지를 지나 경찰서로 연행돼 가고 있던 경찰승합차 안의 제정구 등 국본 집행부는 앞으로 살게 될 징역이 몇 년이 될지 헤아려보고 있었다.

7

명동, 승리의 징검다리



서울역, 남대문 시장, 퇴계로, 충무로, 을지로 입구 롯데쇼핑 등지에서 최루탄에 쫓기던 시위대는 밤이 되자 지친 몸으로 누가 지휘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명동성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국본의 행동수칙에도 없었던 일이며 제안자나 지도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다.

그들의 차림새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옷은 찢어졌고 신발을 잃은 이도 많았다. 모두 저녁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에 허기진 상태였다.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은 1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우선 세 군데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밤새 경찰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계속했다.

새벽이 되자 허기와 피로가 급습해 왔다. 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 명동성당 구내에서 오래전부터 천막농성을 해오던 상계동 철거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은 모든 솥과 냄비를 내다 걸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농성대는 임시 집행부를 구성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 학생들은 동·서·남·북부 4지역으로 나누어 각기 대표 4인을 정하고 일반인은 노동자, 도시빈민, 일반시민 대표 3인을 선출했다.

농성의 지속과 해제를 두고 맨 먼저 토론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학교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을 확보한 학생과 달리 시민에게는 상시적인 투쟁공간이 없으므로 이 농성투쟁은 일반 시민의 투쟁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고 시민대표는 역설했다. 이들 두 주장은 팽팽히 대립했다. 결론은 쉬이 나지 않았다. 다만 해산하더라도 12일 정오까지는 일단 계속하자는 분위기였다.

다음날 오전 10시 반, 임시 집행부는 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집회를 열었다. 무엇보다 준비 안 된 농성을 계속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식량도 옷도 침구도 전무한 처지에 1천여 명이 농성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경찰 측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직면했다. 경찰은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연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후에 바리케이드를 부수며 성당 구내까지 밀려올 태세

였다. 명동성당 전체가 포연 같은 최루가스에 잠겼고 최루탄 파편을 맞은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 항쟁의 메카로 등장한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 최루탄에 고통스러워하는 시민

명동성당 전체가 포연 같은 최루가스에 잠겼고 최루탄 파편을 맞은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피 흘리는 부상자가 여러 곳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의약품은 커녕 당장 써야 할 붕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급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응급처치 자원대가 구성되었다. 문화관 화장실 앞의 시멘트 바닥이 응급병동이 되었고 응급대는 광목 완장에 빨간 테이프 십자가를 붙였다. 이들은 계속 최루탄을 난사하고 있는 전경들 앞으로 가서 적군도 부상자에게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라며 의약품을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무차별 강공 앞에 농성 해산 여론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명동성당 주임신부가 경찰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은 성당 입구로부터 물러갔다. 오후에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전령이 성당에 들어왔다. 계획에 없던 농성투쟁의 해산에 동의하

는 입장을 농성장에 전달했으나 강경 기류에 밀려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8시경 농성장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위해 경찰이 잠시 길을 터주는 사이에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다시 밀려들었다. 농성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거 몰려든 것이었다. 사태를 지켜보던 명동성당은 이날 밤부터 문화관을 개방해 농성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했다. 비로소 농성대는 이를 만에 한뼉잠을 면하게 된 것이었다.

12일 새벽, 희소식과 백만 원군이 함께 당도했다. 서울교구청 40여 명의 신부가 사제의 양심을 걸고 농성대를 보호하기로 결의했으며 또한 서울지역 사제와 수녀들이 대규모 구국미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농성해제론은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농성대들은 장기전 준비에 들어갔다. 맨 먼저 아수라장이 된 성당 구내를 깨끗이 청소했다. 중앙극장과 로얄호텔 앞의 바리케이드를 성당 입구로 옮겨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시민들의 반응이 금세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주차장 옆 건물에서 여사원 몇 명이 순찰번을 서고 있는 농성대에게 손을 흔들기에 쳐다보고 마주 흔들었더니 뭔가가 아래로 툭 떨어졌다. 퐁퐁 묶은 손수건 뭉치 안에서 돈과 쪽지가 나왔다.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들이 모은 작은 성금입니다. 힘내세요.’

이것이 시작이었다. 오후에 여전히 허기지고 그을린 모습의 농성대가 성당 정문으로 진출하자 모여 있던 시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만세와 환호로 환영했다. 그들은 쌓아 놓은 상자를 성당의 담 너머로 밀어 넣었다. 의약품을 비롯해 먹을 것과 의류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순식간에 농성장 안에 상자들이 수북이 쌓였다. 상자를 하나씩 열 때마다 농성장은 감격의 울음바다로 변했다.

쏟아진 편지의 사연 몇을 들여다보자.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몸은 함께 하지 못하나 마음을 함께 보냅니다. 당신들과 같이 피는 흘리지 못하나 눈물만은 함께 흘립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고.

고등학생이라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갑을 털어 작은 성금을 보냅니다.

장한 일 하십니다. 더욱 용기 내십시오. 시민 일동.

마음 약한 40대의 못난 선배입니다. 못난 놈을 용서하십시오. 정부 발표를 보니 다시 1980년 5·18이 생각나오.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드요. 이번만은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되요.

반역자들에게 절대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요. 말없는 많은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부디 건강을 비요.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 하는 일에 항상 여러분께 못 미쳤던 셸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아저씨가 성금을 보냅니다.

이때 성당 깊숙한 안쪽에 자리한 계성여고 학생들은 날마다 최루가스에 시달렸다. 그들 중 몇 명이 어느 날 학교 담장을 넘어와 성당 문화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했다. 그들은 돌아가 즉시 학급을 돌면서 도시락을 건넸다.

농성대는 실로 오랜만에 꿀맛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다 먹은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서 학교 담장 아래 갖다 놓으면 학생들이 다시 찾아왔다. 계성여고는 농성대의 친구가 되어갔다. ‘언니, 오빠들 힘내세요!’라고 적은 쪽지는 농성대들에게 실로 막강한 비타민이 되었다.

이날부터 농성대는 임시 집행부를 개편하고 대국민 선전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성당 오르막길 임시 게시판에 붙은 출입기자들의 반성과 각오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자들은 독재에 협력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농성대를 격려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농성 합류가 확산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독재정권의 입장은 점점 더 강경해졌다. 그들은 농성대를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극렬 난동분자로 규정하며 해산하지 않는다면 전원 의법조치하겠노라고 위협했다. 자정 무렵,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계엄령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공수부대가 곧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도 은밀히 떠돌았다.

농성 집행부는 프락치를 이용한 경찰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회의장 출입자에게는 비표를 소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했지만 돌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피로와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집행부는 조를 나누고 밤새 자신의 삶의 이력 등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갖 우여곡절의 삶과 눈물겨운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증압감을 이기지 못해 술에 만취된 이들도 더러 있었다.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웠다. 그러자 신도와 함께 성당에 들어온 시민들의 성금이 넘쳐났다. 오후 5시, 농성대는 많은 시민과 함께 성당 입구에서 농성과 시국에 대한 자유토론회를 열었다.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프락치들이 더러 잡히기도 하고, 몰래 들어와 토론회를 정탐하던 내무부 차관도 그의 얼굴을 아는 기자의 제보로 농성대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학생들은 오히려 그를 에워싸고 보호한 후 돌아가게 해 주었다.

언론과 시민의 이목이 농성장에 집중된 채 나흘이 지나고 있었다. 그동안 김수환 추기경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함세웅 신부는 김병도 주임신부와 함께 농성대의 안전귀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농성투쟁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10일 저녁부터 안기부는 집요하게 김 추기경 면담을 요청했다. 김 추기경은 안기부차장에게 어떤 경우든 강제적인 무력진압은 안 된다고 단

호하게 잘랐다.

함 신부의 평화적 해결책과 안기부와 시경 측의 강제진압책은 평행선을 달렸다. 함세웅 신부는 농성대를 설득하는 데 진력했다. 지금 정부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 효과는 십분 발휘되고 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다.

농성대는 해산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해산 쪽이 다소 우세했지만 반대하는 측의 결사항전 의지가 너무나 강력했다. 이에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을 또한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감히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할 수 있겠느냐는 한 어르신들의 열변이 반대 측을 가까스로 잠재울 수 있었다.

* 함세웅

함세웅은 1942년 6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출생했다. 한국전쟁 시기 포격을 피해 성모병원으로 피난을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가톨릭에 입문했다. 세례명은 토마스 모어이다. 1965년 가톨릭대학을 수료한 함세웅은 로마로 유학하여 1968년에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1973년 그레고리오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 연희동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응암동성당 주임이 되었고, 1974년 가톨릭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1974년 초 지학순 주교 등 각계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대거 구속된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을 주도했다. 1976년 한국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3·1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해 구속된 바 있고, 1979년에도 구속된 상태에서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 해제로 석방되었다. 이후 한강성당, 구의동성당을 거쳐 6월민주항쟁 국면에는 서울대교구 홍보국장이었다. 1989년에는 평화신문·평화방송을 창립하여 초대 사장을 역임했고, 장위동성당, 상도동성당, 제기동성당 주임신부로 봉직했다. 1996년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창립에 참여했으며, 2004~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함세웅은 2012년 8월 26일 청구성당 본당신부로 은퇴했지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날이 밝은 6월 15일 10시, 농성대는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문화관을 나섰다. 농성 5일 만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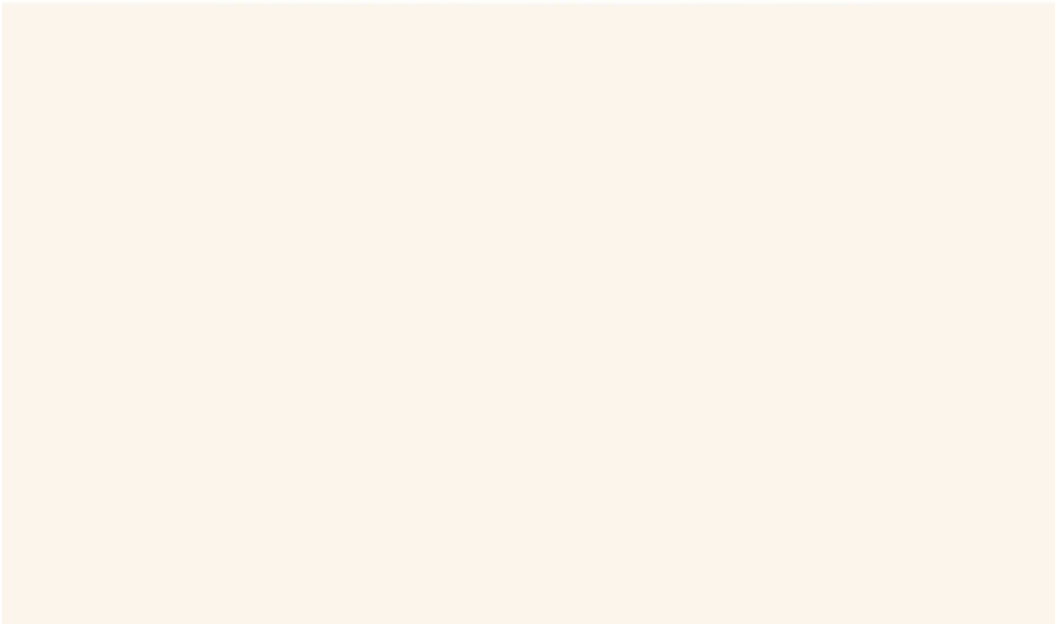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우렁찬 함성이 울리자 명동 안의 사무실 창이란 창이 모두 열리고 박수와 환호가 천둥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희망이 머물던 곳, 명동성당의 농성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뒤이은 6·18대폭발로 가는 징검다리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8

이한열, 역사를 바꾼 한 장의 사진



이한열, 역사를 바꾼 한 장의 사진

항쟁의 지도부 국본은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했다. 대규모 군중시위 앞에 경찰은 오로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최루탄 난사로만 대응하고 있었다. 날마다 부상자가 속출했다. 부상자 가운데 연세대생 이한열이 누워 있는 중환자실은 서서히 다시 태풍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한열은 6월 9일 오후 5시경 6·10대회 출정식 시위 도중 교문 앞에서 최루탄 파편을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옆에 있던 친구 이종창이 의식을 잃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는 한 장의 사진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린 이한열의 모습은 한국 상황의 긴박성을 전 세계에 응변했다.

이한열은 수술이 불필요할 정도의 중태에서 가까스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꺼져드는 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연세대생들은 대부분 낮 동안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다가 밤이 되면 교정으로 돌아와 이한열이 누워 있는 교정 안의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격렬한 저항의 근거지로 부상한 이한열을 탈취해 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불안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경비조를 편성해 24시간 입원실을 지켰다. 보도가 나가면서 이들에게 시민의 격려와 성금이 쏟아졌다.



●●● 최루탄 파편을 맞고 쓰러지는 이한열

옆에 있던 친구 이종창이 의식을 잃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는 한 장의 사진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연세대 의대와 간호대는 연일 늘어가는 최루탄 부상자를 보살피기 위해 의료대를 구성하고 시위 현장으로 나섰다. 평소 학생운동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던 여행이나 종교 동아리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러던 중 이한열을 부축했던 이종창 역시 최루탄 추방대회 날 최루탄 파편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 두 친구는 나란히 병상에 누웠다. 이종창은 두 번에 걸쳐 머리 수술을 받았다.

이 극심한 분노는 낮이면 '독재타도'라는 절규로, 밤이면 교정의 불빛 아래서 '한열아! 종창아! 어서 일어나라'는 간절한 기도로 나타났다. 슬픔의 힘은 더욱 넓게 번져갔다.

최루탄 추방의 날인 18일, 민가협 어머니들과 여성단체는 장미꽃을 전경들의 가슴, 투구, 최루탄 발사기의 총구에까지 꽂아주며 '쏘지 마!'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는 넘쳐났다. 이날의 시위는 6월 10일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주력이 학생들이기는 했으나 작은 대학이라도 있는 모든 중소도시와 읍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날 저녁 9시 AFKN 방송 화면에 미군의 외출금지를 고지하는 자막이 흘렀다.



●●● 민주열사 이한열 열사상

이한열은 1985년 2월 광주진흥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광주진흥고등학교총동창회는 이한열의 희생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 7월 5일 학교 정문 입구에 흉상을 건립했다.



●●● 이한열 기념관

이한열 기념관은 국가배상금으로 1990년 12월 서울시 장천동에 임시 개관했으나, 1996년 6월에 재개발로 이전해야 했다. 2003년 6월 9일 개최된 '제16주기 이한열 추모의 밤'에서 동문들의 제안으로 '이한열기념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모금과 기부 활동

을 벌여 12월 4일 노고산동에서 기공식을 갖고, 2005년 6월 9일 개관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세계 굴지의 언론사 동경 특파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날 부산의 시위는 서울보다 몇 배 더 치열했다. 서면에는 30만이 집결했다. 경찰버스가 불타고 여러 곳의 파출소는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 부산 시민들은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을 떠올렸다. 당시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한 반대 함성은 잔혹하게 진압당했지만 위수령이 떨어진 열흘 후에 유신독재는 종말을 맞았던 것이다.

대청동, 충무동, 남포동은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다시피 했으며 부산 가톨릭센터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수녀들은 도시락 500개를 센터 안으로 반입했다. 센터 안의 학생들은 밤새 유인물을 만들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시민들을 향해 뿌렸다. 군부독재와 결사항전하겠다는 학생들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왔다.

명동성당 농성대의 해산과 함께 이제 바야흐로 부산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본 집행부였던 이해찬, 이명준, 황인성 등이 일일 상황 점검을 위해 모여 있는 사무실에 익명의 전화 제보가 날아왔다. 군부대들이 출동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부산과 광주 전역에 계엄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시위대가 보기에 이미 경찰력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었다.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한양대에 모여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치러진 6·18대회 평가회를 하다가 계엄설과 비상조치설을 접했다. 순간 그들의 뇌리에 1980년 광주의 몸서리쳐지는 광경이 스쳐갔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즉시 학교별로 대책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흩어졌다.

그들 모두는 학교로 돌아가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의 행동지침 세 가지를 결의했다.



●●● 6월민주항쟁 기념비

동아대학교에서는 1987년 4월부터 호헌반대투쟁이 전개되었고, 5월에는 학원민주화운동과 연동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부산지역의 6월민주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아대학교 6월항쟁 2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이를 기

첫째, 매일 오후 3시 학교 앞 다방에 모였다가 5시에 교문 앞에 집결한다.

둘째, 학교 진입이 실패할 경우 6시 명동에서 모인다.

셋째, 투쟁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부를 보호한다.

국본 집행부는 절박한 고민에 빠졌다. 제어할 수 없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적 열기를 더욱 고양시켜 군사정권 퇴진이라는 막바지까지 올라갈 것인가. 계엄설의 유포를 정치적 협상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전두환의 계엄령 선포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국본은 다음날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사제와 수녀들이 피정할 때 주로 쓰는 끈벤뚜알 수녀원에서 철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삼 계와 김대중 계의 집행위원들이 정치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항쟁 지도부의 고민과는 아랑곳없이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었다.

20일 아침, 국본은 4·13호헌선언 철회, 양심수 전원 석방,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정부가 22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전국민평화대행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끊임없는 계엄설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의 대도시들은 거대한 시위의 함성과 물결이 해일처럼 출렁거렸다. 특히 아직도 1980년 5월의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광주시민은 10일 이후 연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룬 시위행렬을 근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이날 마침내 3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두를 이루면서 독재타도를 외쳤다.



●●● 부산교구 신부행진

이들 고교생들은 학교의 수업조정에도 개의치 않고 20일 이후로 연일 학교별로 조직적으로 가두집회에 나섰으며, 시민들은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6·26평화대행진의 성공을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된다.

이리, 여수, 순천 등지에서는 거의 시민 절반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 도시들도 고교생들이 행진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주역을 담당했다. 4·19혁명 이후 37년 만의 일이었다.

호남지역의 특징이 있었다면 전두환 정권 출범부터 군사독재를 지원해 온 미국에 대한 반감과 민족자주의 의지가 담긴 구호가 두드러진 점이었다.

20일 밤 9시 국무총리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 정부로서는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 같은 담화문을 비장한 표정으로 발표했다. 야당가에도 이 같은 비상조치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다.



●●● 6·26평화대행진—스스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

그러나 국본은 계엄령의 공포에 떨어야 할 여유조차 없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두환과의 협상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와 미련을 제압한 후 국본은 23일「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다.

‘침묵하고 있던 다수가 독재의 편이 아니라 민주 국민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기는 독재 권력에게는 위기이지만 국민에게는 민주화의 희망이자 기회입니다...’

6월 26일 오후 6시 전국에서 국민평화대행진을 실시한다고 선언하는, 행간마다 승리의 확신으로 넘치는 글이었다.

대회 장소는 파고다 공원이었지만 서울의 경우 구별로 집결지를 달리 정했다. 시청, 광화문, 동대문, 안국동, 신세계 등으로 분산해 부도심 집결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집결지에 170개 중대 25,000명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을 투입해 철통 방어로 임했다.

그러나 막상 오후 6시에 이르자 이 차단망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밀려드는 시위대 앞에 경

찰력은 중과부적이었던 것이다.

부산에서는 신부와 수녀들이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특별미사’를 마친 후에 행진의 선두에 섰다.



●●● 부산민주공원

1995년 8월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결성했던 (사)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민주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모금운동을 벌이다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부산민주공원은 영주동 소재 중앙공원의 일부(20,337m²)를 할애하여 1997년 10월에 착공되고 1999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주요 시설은 부산민주항쟁기념관 등이다.

‘애국시민 단결하여 살인정권 끝장내자!’

이들이 앞세운 플래카드를 본 시민들은 급속히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같은 시각, 경찰의 과잉진압에 격분한 시민들에 의해 서면 가야파출소는 불타고 있었다.

마산도 상황은 부산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북마산 광장에 운집한 시민들은 김영식 신부 등이 선두를 이룬 행렬과 함께 5·18민중항쟁의 비극을 노래한「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북마산 오동동 파출소가 부서졌다.

진주와 울산도 마찬가지였다. 각지에서 경찰이 무장해제당했다.

경북지역의 대구, 안동, 포항, 김천 등지에서도 4·19이후 처음으로 거리 행렬이 물결을 이루었다. 주로 그 지역의 대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회사원,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재미있는 구호들도 쏟아졌다.

‘군부독재 타도하고 2학기엔 공부하자!’

‘군부독재 타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부처님도 열 받았다 군부독재 타도하자!’

‘밀어주자 노태우 벼랑으로 밀어주자!’

‘대통령이 술잔이나 군부끼리 돌려먹게!’

노래 가사를 바꾼 많은 개사곡들이 시위 현장을 흥겹게 하기도 했다.

‘새 나라의 대통령은 일찍 물러납니다. 장기집권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머리 머리 대머리 이제 그만 뿜. 주걱턱도 뿜뿜뿜 지구에서 떠나라’



●●● 서귀포 6월항쟁기념비

6월민주항쟁 당시 제주도 서귀포 시민들은 매일올레시장 입구에 위치한 광장에 집결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는 2011년 6월 25일 서귀포시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후원을 받아 항쟁 당시의 현장에 기념비를 설치했다. 기념비는 조형물과 표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의 대학이 있는 모든 도시, 남녘의 제주까지 독재타도의 함성이 메아리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전국 34개 도시 270여 곳에서 백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이 참여한 6·26평화대행진은 한국인들의 민주화 열기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항쟁의 지도부인 국본도, 직접 참여한 국민들 자신도, 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언론사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항쟁의 끝이 어디쯤일는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전두환이 호헌선언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이상 이 행진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뿐이었다.

9

계엄령, 정말 미국이 막았나



계엄령, 정말 미국이 막았나

6월항쟁이 빈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보름여 동안 집권세력이 보여준 행태에서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과는 전혀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저항이 분출할 때마다 정부는 계엄령, 위수령을 발동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 굴욕적인 한일외교정상화에 대한 전국 대학가의 항의시위였던 1963년 6·3한일회담반대운동, 유신종말을 재촉한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 5월의 민중항쟁 등에서 그러했듯이 정통성 없는 반민주적인 정권은 항상 무력으로만 이를 진압해 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전의 그 어떤 저항보다도 거대한 힘이 분출했음에도 전두환은 계엄령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지 아니했다.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를 전후해서 비상조치설을 흘렸을 뿐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6·3한일회담반대운동

한일협정 체결은 두 국가 사이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한일협정은 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협력관계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3국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정부는 비밀리에 한일회담을 추진했는데, 야당과 학생들은 이를 대일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1964년 3월에서 5월까지 한일회담의 타결·조인·비준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3월 24일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대규모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묵살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반대운동은 4월 1일 국회에서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가 공개되면서 한층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6월 3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진출했으며, 청와대 외곽 방위선도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다.

정부는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의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날 당국은 1,200여 명을 연행했고, 384명을 구속했다. 비상계엄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는 방법의 효시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오던 김종필은 공화당 의장을 사임했지만,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은 체결되었다. 6·3한일회담반대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들과 일본의 팽창주의 그리고 미국의 개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분출된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어렵잖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시위가 가일층 격화된 6월 19일, 릴리 주한 미 대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두환에게 전달하면서 ‘강경책은 미국 내에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극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군이 출동하는 비상사태가 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바로 다음날, 6월 투쟁이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온 미 국무성 차관보 더윈 스키가 ‘군이 개입하면 한국 국익 크게 해칠 것’이라고 한 것,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6·26대결 돌 바로 직후에 미 상원에서 한국 민주화 결의안이 통과되고 솔츠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점 등이다. 그리고 후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스티븐 솔라즈가 한국의 6·29선언을 두고 미국 외교사의 커다란 업적으로 자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군 출동을 저지하고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음을 추측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생긴다. 미국은 왜 계엄령을 만류했을까?

민간독재였던 이승만 정권의 4·19계엄령 발동 당시에는 군이 학생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기에 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없었지만,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계엄 당시에 휘두른 폭력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하고도 참혹한 것이었다.

미국은 사전이든 사후이든 친미정권 수립의 목표만 달성되면 한국 국민의 인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 정부가 1980년 5월 22일 5·18민중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의 작전통제 안에 있는 한국군 20사단을 투입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막는다며 미 항공모함을 한국 해역으로 급파해 사실상 전두환 일당이 마음 놓고 광주를 진압할 수 있도록 호위한 격이 되어버린 사실이 이를 극명히 입증한다. 국군 20사단은 수도권 방어가 주임무인 정예부대였으며 19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임을 굳게 믿고 있던 터라 그 배신감이 더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 미 행정부는 1980년 이후 내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볼 때 몇 안 되는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의 국민들로부터 전두환의 집권을 은밀히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갑자기 한국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천사로 변화하기라도 한 것인가.

6월 18일을 전후해 전두환이 계엄을 검토했다는 증거 역시 미국이 행한 여러 조치들의 증거처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작에 의한 것이든 전두환의 판단에 의한 것이든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고 6월민주항쟁은 경찰의 무자비한 최루탄 난사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평화롭고 명예롭게 막을 내렸다.

전두환과 미국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포기하게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이 일관되게 보여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동 때문이었다.

우선 국민들은 계엄설 풍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족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참혹하게 진압당했던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중항쟁처럼 6월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 광주라는 제한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1980년 5월에 70만 인구의 광주를 장악하지 못하고 계엄군이 한때 외곽으로 밀려났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구 1천만이 사는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자면 수도권외의 군 병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만약 군 병력 투입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결국 6월민주항쟁에서 계엄령을 막은 것은 미국의 자비심도 아니요, 전두환의 개과천선도 아닌 바로 한국 국민 자신의 자각과 실천의지로부터 솟아오른 거대한 힘이었던 것이다. 6월민주항쟁이 분출한 힘은 전두환이 사용할 수 있는 군대, 경찰력을 위시한 그 모든 종류의 폭력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한두 명의 천재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민중 자신이라는 이론은 시대를 초월해 타당하다.

6·26평화대행진 이후 특히 호남 일대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흘 후인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는 돌연 TV 화면을 통해 사태해결을 위한 6개항의 제안을 하고 이를 전두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정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다.

직선제의 즉각 수용, 김대중의 사면복권, 모든 양심수의 석방, 언론자유 보장 등을 요구한 그는 마치 거대한 운명에 도전하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홀연히 서울을 떠났고 다음날 전두환은 이를 모두 수용하는 담화를 발표한다.

국민들은 너무 빨리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직면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6월민주항쟁의 불꽃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 6·29선언 발표 후—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음미할 틈도 없이 국민들은 헌법개정의 내용과 이후로 전개될 민주화 일정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는 이상 민주화의 결실을 금방이라도 손에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 6·29선언

정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6월민주항쟁의 불길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배세력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표로 하여금 '6·29선언'을 발표하게 하고, 시국 수습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88년 평화적 정부 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의한 공정선거 실시,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 석방, 구속적부심 확대 등 기본권 강화, 언론기본법과 프레스카드 폐지 그리고 지방주재 기자제 부활 등 언론제도 개선,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정당 활동 보장, 사회정화조치 실시, 유언비어 추방, 지역감정 해소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동체 형성 등 8개항이었다. 노태우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정의당은 노태우의 제안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하고, 전두환은 7월 1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다. 6·29선언은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이 되었으며, 4·13호헌 조치의 철회와 직선제 개헌안이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 6·29선언문(일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다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

뒷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태우의 6·29선언은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해도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전두환과 신군부 집단의 미리 계획된 잘 짜여진 사기극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은 승리에 취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6월민주항쟁의 전야제 날, 머리에 직격으로 최루탄 파편을 맞고 사경을 헤매이던 연세대 이한열 군은 항쟁의 승리를 보았던 것인지 스물두 살 짧은 생애의 숨을 거두었다.

피를 흘리며 목이 툭 부러진 꽃송이처럼 고개를 늘어뜨린 그의 사진은 독재타도의 함성과 함께 국민의 뇌리에 선연히 새겨졌다.

10

글을 마치며



1987년 7월 9일에 거행된 이한열의 장례식은 우리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한 집회로 기록될 것이다. 갖가지 빛깔의 만장 숲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의 행렬은 연세대 교정으로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거대한 강물을 형성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살해당한 이후부터 불붙기 시작한 6월민주항쟁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1백만 명 장례행렬의 장관을 지켜보는 길가의 많은 시민과 전국의 국민들이 눈시울을 적시는 가운데 이한열은 그가 자란 남도 광주의 품으로 돌아갔다. 운구차가 떠난 서울 시청광장에서 1백만의 인파는 두어 시간 더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졌다.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후에 전개될 민주정부의 출범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 7~9월 노동자 대투쟁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6월민주항쟁은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정치권에서는 직선제 개헌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6월민주항쟁의 실질적 주역이었던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다. 6월민주항쟁은 오랜 독재의 세월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졌으나, 시민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면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대투쟁에 들어갔다.

노동자 대투쟁은 7월 초에 울산의 현대그룹 사업장들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대기업 사업장들로 파급되었고, 7월 하순에는 마산·창원의 공단지대에서 분출했다. 8월 중순에는 현대그룹노조연합 가두시위로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후 부산 그리고 거제의 대우조선 등에서 폭발했다. 특히 8월 22일 최루탄 피격으로 이석규가 사망하면서 파업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8월 중순부터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공세와 규제를 시작했다. 8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폭력·파괴·불법 행동 비난’과 ‘공권력 개입을 요청’한 것이 계기점으로 작용했다. 이후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에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압박 여론을 형성했다. 대투쟁은 9월에 이르러 성과들이 도출되고, 정부와 회사 측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1987년 12월 기준으로 1,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새롭게 결성되었고, 232,000여 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일구어 낸 명예롭고 값진 민주주의의 승리는 6월민주항쟁의 함성을 이어받아 곧바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그 내부에 분열과 좌절

의 씨앗을 잉태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총칼에 의지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금압했던 전두환 정권 아래서 노동자의 설움과 소외는 극한에 이르러 있었다. 6월민주항쟁으로 형성된 다소간의 자유로운 여건을 틈타 전국의 노동자들은 두 달에 걸쳐 1천여 개의 노조를 설립했으며 3,500여 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지켜보는 보수 언론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각은 6월민주항쟁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를 일반화하고 침소봉대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에 언론이 앞장서면서 불과 두어 달 전에 거리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재타도를 외쳤던 국민들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생과 일부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 청주 6월민주항쟁 표지석

6월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민주항쟁 20주년 사업 총북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2007년 6월 10일 당시 항쟁의 중요한 장소들이었던 상당구 성안동 성안길 149와 남문로 2가 20-2번지에 "87년 6월민주항쟁 역사의 자리"라고 명기한 표지석을 각각 설치했다.

설상가상으로 불행은 겹쳐서 찾아들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나뉘어 있던 정치세력은 국본을 이끈 민주화운동 세력의 강력하고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채 결국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각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주화 진영 내부 깊은 곳까지 분열을 초래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광주와 대구, 부산과 전주의 구별 없이 영호남이 하나 되어 독재타도를 외쳤던 이들이 지역감정으로 갈라섰다는 사실이다.

이를 적절히 이용한 노태우는 '광주학살의 원흉'으로부터 '6·29선언의 영웅'으로 변신, 결국 총칼 아닌 합법적 선거에 의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온갖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부정한 행태가 있었지만 민주세력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죄과 앞에 그것이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군사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오랜 기간 핍박과 소외와 온갖 종류의 차별을 받은 호남인들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30년 집권 동안 많은 특혜를 누린 영남인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좀먹는 고질로 남아 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비좁은 국토에서 수천 년 동안 언어와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한 민족공동체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6월민주항쟁은 독재타도라는 완전한 승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체육관선거로부터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되돌려 받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부분적이고 지극히 불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세 개의 큰 사건으로 흔히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민주항쟁을 꼽는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의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순정한 분노와 정의감의 폭발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 항쟁이 끝날 때까지 지도부가 전혀 없었다. 5·18민중항쟁은 항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 후인 1987년의 6월민주항쟁은 국민적 항쟁을 이끌 지도 구심부터 먼저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한 양상이 4·19, 5·18과 크게 다르다. 그리고 이 ‘국본’ 조직의 각 지역지부들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뿌리를 잃지 않고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전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비록 6월민주항쟁이 정치 지도자의 분열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취약함으로 인해 5년간의 군사독재 연장으로 귀결되기는 했으나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연이어 수립되면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국민의 실제생활에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구현되고 있다. 문민정부는 군부 내의 사조직인 정치군부 ‘하나회’를 전격 해체함으로써 군사쿠데타에 대한 공포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도둑이라 부르기에 모자람 없이 각각 5천억 원이 넘는 부정축재를 저지른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군사반란과 천문학적 도둑질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보여주었다.

뒤이은 국민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켰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인권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6월민주항쟁의 지연된 승리’라고도 진단한다.





●●● 6·10민주항쟁기념식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6월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1993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 2007년 4월에 이르러 '6·10민주항쟁기념일' 지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정부 주최로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등에서 열린다.

또한 6월민주항쟁은 이전의 4·19나 5·18이 곧바로 5·16군사쿠데타와 전두환 신군부의 출현이라는 즉각적인 반동을 불러온 점과도 크게 구별된다.

이는 결코 위정자가 자비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6월민주항쟁은 기념해야 할 지나간 한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살아 있어야 하는 국민의 주권의식과 참여정신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아홉 번이나 개정된 만신창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중 여섯 번은 오직 하나의 목적인 독재자의 집권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헌법 파괴행위였고, 세 번의 경우는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이후의 민의에 의한 합법적 개헌이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5·16군사정변 직후에 발족했던 '군사혁명위원회'가 5월 18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기구는 법적 기반을 갖는 최고통치기구로 군림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권·행정권의 일부와 사법·행정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장악했다. 법제·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다. 중앙정보부·재건국민운동본부·수도방위사령부·감사원을 비롯해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산하기구로 두고 용공분자 색출을 표명했다. 사법적 성격을 갖는 기구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4·19혁명 이후 급성장하던 혁신세력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즉 각종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언론매체·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키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단죄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0월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해체되었다.

*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안이 발표되었다. 이 헌법의 부칙에 따라 제11대 국회가 구성되기까지 국회를 대행할 과도입법기구로 10월 29일에 구성된 것이 국가보위입법회의였다. 이 기구는 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대통령이 의원 모두를 임명했다. 주요 임무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고 통치기반 구축에 필요했던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보호처분제도와 사회보호법안, 집시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개정안, 대통령간선제의 선거법안, 언론기본법안, 노동법 개정안, 농어촌 후계자 육성법안 등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던 1981년 4월 10일 해산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았으며, 신군부의 행위가 불법적인 권력 찬탈로 평가되어 사법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의거해 이루어진 재판 등은 헌법 부칙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헌법은 재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체념하면 박정희처럼 현역장교들의 모임인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시켜서, 전두환처럼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불법기구를 이용해 헌법을 칼질하는 사태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은 지나간 유물이 아니라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안의 현재적 야만인 것이다. 반면 주권자인 국민이 불의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하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헌정사는 보여주고 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인권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4·19혁명이 남긴 명언처럼 언제나 ‘자유는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6월민주항쟁은 민주주의 도정에서의 ‘루비콘 강’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청년학생을 선두로 하여 실로 용감하게, 다시는 독재체제로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6월민주항쟁을 분수령으로 우리 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꾸준히 확대·신장되는 민주주의 이행기로 접어들었다. 정치적인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학대와 폭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노동자와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 머무르지만은 않는다.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설립되어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행여 국가가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나 않는지 늘 감시한다. 폭력적인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위법행위가 있으면 이를 가차 없이 조사하고 단죄한다. 언론은 검열당하는 위치로부터 비약해 권력의 아무리 작은 비리일지라도 사냥개처럼 살살이 찾아내 마음대로 물어뜯는 바야흐로 무소불위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국민 누구든지 거침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6월민주항쟁은 4·19혁명과 다름없이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꿈꾸는 청년들의 이상과 헌신이 빚어낸 역사이다.



●●● 헌법재판소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던 한국의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헌법의 규범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국가권력의 남용 통제를 주요 임무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요구되었던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가 논쟁을 벌인 끝에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해 11월 25일 출범했다.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 의 아들 이한열.

역사를 바꾼 거룩한 죽음을 필두로 이 두 청년 못지않은 고결한 열정과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던 아리따운 이 땅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기리며 글을 맺는다.



●●●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모란공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설묘지이며, 민족민주열사묘역은 그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곳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들이 차츰 안장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묘지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전태일을 비롯해 김진수, 최종길, 문익환, 조영래 등 약 150여 명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4·19행렬에서 친구를 잃어버린 한 시인은 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꿈길에서 그를 만난다.
이 글을 읽는 청소년들도 혹여 먼 훗날, 생활에 지친 어느 날 밤 문득 꿈속으로 찾아온 박종철과 이한열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 정결한 '손님'을 마주치거든 그의 이마가 얼마나 맑은지 그의 눈빛이 어떻게 빛나는지 기억해 둘 일이다. 그때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 줄 시 한 편을 간직해두자.



●●● 솔밭산공원묘지(열사·희생자 안내도)

솔밭산공원묘지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집단묘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는 40여 명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길을 비롯해 노동운동과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느 날 밤

내 깊은 잠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아직도 깨끗한 손길로

나를 흔드는 손님이 있었다.

아직도 얼굴이 하얀,

불타는 눈의,

청년이 거기 있었다.

눈 비비며

내 그를 보았으나

눈부셔 눈을 감았다.

우리들의 땅을 우리들의 피로

적셨을 때,

우리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랑을 찾았을 때,

검정 작업복을 입었던 내 친구
밤 깊도록 머리 맞대었던 내 친구
아직도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아아 부끄러운 내 어깨 위에
더러운 내 14년의 어깨 위에
그 깨끗한 손길로 손을 얹었다.

— 이성부「손님」

사진과 설명상자의 참고자료

- 가톨릭정보-천주교용어자료집(info.catholic.or.kr).
- 경찰청 남영동 인권센터 내부 전시 기록물.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5·18민주화운동』.
- 교보문고 책 소개 글.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강제징집·녹화사업 진상조사보고서』.
- 김창남. 1997.「대중문화의 변화와 탈정치화」.『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당대.
- 김판근. 2004.「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다음 아고라. “향린교회, 드디어 민족교회로 나서는구나”(bbsl.agora.media.daum.net).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9.『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2003.『민주화운동청년연합 20주년 기념집』.
- 민통련창립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2005.『민·통·련』.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6월항쟁을 기록하다 2』.
- 서중석. 2013.『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 신홍범 정리. 2010.『박형규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창비.
- 위키백과사전.
- 윤무한. 2008.「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힘찬 출발」.『내일을 여는 역사』 31호. 선인.
- 이부영 고별사.
- 이영미. 1997.「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역사비평』 39호. 역사비평사.
- 이해찬·유시민 외. 2000.『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 학술단체협의회. 1997.『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편. 1990.『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 함세웅. 2011.『삼장에 남는 사람들』. 빛두레.
- 『뉴스 1』, 2014.4.3. “고 김근태 고문사건 재심 첫 공판.”
- 『시사인라이브』, 2013.11.2.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라진 사람들.”
- simpro 반백년 이야기(blog.daum.net/huhasim).